

濟州女性 들의 屋外 勞動空間의 性格과 特性에 대한 研究

정 광 중(제주교육대학교)

I. 머리말

최근 공간(空間)이라고 하는 용어는 장소(場所)라는 용어와 더불어 상당히 의미심장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 지리학자 이-푸 투안(Yi-Fu Tuan)은 “공간과 장소란 용어는 우리들의 생활세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경우에 따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의미를 찾아낼 수도 있고 전혀 묻고자 하지 않았던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공간과 장소와의 관계에서는 “공간이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장소는 정지(멈춤)한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¹⁾.

이처럼 지리학 분야에 있어서는 공간과 장소라는 개념이 매우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각별한 배경 속에서 차별화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공간이란 용어는 어느 정도 한정된 범위를 의미하면서도 어떠한 행위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더불어 장소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띤 용어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공간이라는 용어가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을 담아내는 지리학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평범하고 일반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 즉 ‘사람들이 어떤 행위나 동작을 실행할 수 있거나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특정적인 범위’라는 정의를 바탕으로 논의해 가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하면, 여기서 사용하는 공간이란 용어에는 장소라는 의미를 덧붙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제기해 두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은 공간이라는 주제어를 바탕으로 하되 과거 어느 한 시점까지를 배경으로, 제주여성들이 옥외 공간에서 어떠한 노동(일)²⁾ 들을 행하며 생활을 설계해 왔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작성하는 기본시점은 시기적으로 대략 1970년대까지, 즉 제주도민들 대부분이 자연환경에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전통사회가 유지되던 시기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1980년 이후에 나타나는 제주여성들의 경제활동이나 노동공간이 색(色)이 바래서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한가지 구차한 변명으로 대신하자면, 현시점에서 평가하는 제주여성들의 경제활동이나 노동공간이 그 이전 시기로부터 물려받은 하나의 유산이라 가정한다면, 더 이상 뇌리에서 잊혀지기 전에 정리해 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이-푸 투안 저(Yi-Fu Tuan), 구동희·심승희 역, 1995,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15~22쪽.

2) 이후부터는 ‘노동(勞動)’이라는 한자어 외에도 ‘일’이라는 우리말을 적재적소에서 바꾸며 사용하고자 한다. 엄밀하게 사전적 의미에서 볼 때는 ‘노동’과 ‘일’의 개념은 분명히 서로 다르다. 그러나 노동이라는 한자어의 배경에는 반드시 그 대가로서 ‘임금(賃金)’이나 ‘급료(給料)’가 전제돼 있는 듯한 이미지가 깔려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문맥이 매우 어색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실제로 노동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노동문화’나 ‘노동공간’과 같이 두 단어를 붙여서 표현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노동이라는 용어로 중시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제주여성들의 노동공간이라는 관점을 부각시켜 접근해 갈 때, 일의 성격이나 내용과 관련하여 시점(時點)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적어도 1970년대 이전까지 많이 행하던 노동이 현시점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는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평가할 때 다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이자면, 현시점에서 생각할 때는 이미 사라져버린 노동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처럼 사라져버린 노동도 제주여성들의 노동문화라는 측면에서 논의할 때는 결코 경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글의 작성은 주로 청취조사와 문헌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과거에 일부 제주여성들의 행하던 일거리 중에서는 아주 섬세하고도 단련된 숙련기술이 동반돼야만 가능했던 것들이 있다. 따라서 일의 단계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청취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현시점에서 볼 때 이미 사라져버린 일거리 중에서도 매우 특수하거나 생존자가 거의 없어 청취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선행들에 의해 발표된 연구 결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II. 濟州女性들의 屋外勞動과 勞動空間의 形成

제주여성들의 노동공간은 아주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어머니나 할머니들의 손이 닿고 발길이 머무는 장소, 그리고 앉아있는 장소나 공간이 곧 노동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전통사회가 유지되던 시기의 제주여성들은 한시라도 손에서 일거리를 놓지 않고 생활하는 맹렬 여성이었다. 제주여성들은 한가지 일거리를 처리하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의 일거리를 정하며 삶을 살았다.

집안내의 노동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즉, 오늘과 내일 또는 며칠 안으로 필요한 의식주 관련 노동이라고 설정할 때, 들과 밭과 바다 등 집밖의 노동은 가까운 미래나 먼 장래에 가족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이라고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사회의 제주여성들의 옥외 노동공간은, 주거지로부터 거리적 개념을 대입하여 구분하면 길가(마을길), 빨래터, 시장, 밭(농경지)과 들녘(들판), 바다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들 노동공간의 성격과 제주여성들의 노동과정의 특성을 결부시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1. 길가(마을길) : 솜씨의 노동공간

집밖의 길가(마을길)라고 하는 공간은 사회생활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곳이다. 아침에 눈을 뜨고 집밖을 나서면, 동네사람들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공간이 집밖 길가의 공간 즉 마을길이다. 마을길의 공간은 도로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이어져 있다(그림 1). 이와 같이, 길은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지만, 제주여성들에게는 노동이 행해지는 공간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더욱이 제주도 농어촌의 마을길은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제주여성들의 노동공간으로서 마을길은 선적(線的) 공간의 특징을 담고 있다(사진 1). 선(線)은 어느 한 지점에서 시작되어 계속 이어지거나 또는 어느 한 지점에서 맺어지는 속성

을 지닌다. 선의 속성을 지닌 마을길은 일직선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꾸불꾸불한 곡선형태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길의 속성을 인지하고 있는 제주여성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하여 일을 하곤 했다.

제주여성들은 평소에 마을길에서 어떤 일들을 해 왔을까.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농작물 타작, 타작한 농작물 말리기(날래 널기) 및 불리기(바람에 날리며 골라내기), 걸름(거름) 쌓기, 집줄 놓기, 미역 톳, 감태 등 해산물 말리기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사례로 정리하면서 마을길이 주는 공간성의 의미를 음미해 보기로 하자.

마을길 주변에서 가장 손쉽게 볼 수 있었던 한 장면이라고 하면 농작물 타작이다(사진 2). 농작물 타작은 보통은 집안 마당에서 행하거나 혹은 밭에서 베어낸 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마을길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지나가는 마을사람들에게 다소의 피해도 돌아간다. 그러나 서로가 피치 못할 집안 사정을 아는 처지라 이해할 수밖에 없음을 안다.

농작물 중에서도 마을길을 자주 짐령하는 것들은 찰깨(참깨), 유채, 콩, 팥, 고추 등 알맹이를 털어 내야 하는 작물류가 많다. 그런데 이런 일거리는 남성보다도 주로 여성들이 담당



그림 1.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의 마을길

신엄리의 마을길도 제주도 어느 농어촌의 길처럼 불규칙적인 곡선으로 미로처럼 이어져 있다. 제주여성들은 이 마을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작물을 말리기도 하고, 길 한쪽 편에 거름을 쌓아두는 지혜를 발휘해 왔다.

자료 : 1:5,000 지형도 한림(翰林 075) 도폭(1984년 편집, 국립지리원 발행).

했다는 사실이다. 유채나 콩, 팥 등의 타작은 일단 한낮 동안 잘 말리는 작업부터 시작된다 (사진 3). 청명한 날 하루나 2~3일 잘 말린 유채나 콩, 팥, 녹두, 참깨 등은 쉽게 알맹이를 털어 내기 위한 작물의 상태가 중요하다. 따라서 작물의 양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통풍이 잘되면서 그늘이 지지 않고 많은 일사량을 필요로 하는 장소로서 마을길은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길이라 해도, 자신의 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기껏해야 직선거리로 200~300m를 벗어나지 않는 게 보통이다. 물론 그 배경은 시간을 절약하고 관리상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마을은 여러 개의 자연마을 별로 구성되는데, 하나의 자연마을은 많은 집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 다반사다. 따라서 집 앞의 마을길은 통행에 우선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이 사실이지만, 필요시에는 서로가 사용할 수 있는 제2의 '마당'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어느 집이건 간에 자신과 이웃집 앞뒤를 연결하는 마을길 200~300m의 구간은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공동적 소유 공간이자, 공동 운영권이 통하는 노동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어떤 연구자는 마을길(주택가 길)을 '거주지의 연장공간', '주민들의 사회적 교류공간' 및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 취급함으로써 길 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라고 강조한 바 있다³⁾.

동그런 고랫방(빵)석이나 명석 위에도 유채나 콩, 팥, 녹두 등의 농작물을 놓고 마을길에 한 줄로 늘어선 장면은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제주도의 농어촌을 수놓는 또 하나의 색깔이다. 참깨의 경우는 한 다발씩 묶어 돌담에 의지하여 며칠 동안을 말리기도 한다. 어떻게 마을길 따라 쪽 늘어선 농작물은 마을길의 공간적 의미를 한층 깊게 대변한다.

며칠 간 햇볕에 말린 농작물은 비교적 집안에 한가한 날을 잡고 타작작업에 들어간다. 타작과정은 해당 농산물에 따라 다소 다르다. 가령 유채나 콩, 팥, 녹두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의 명석 한가운데 몰아넣고 도깨(도리깨)로 타작해야 알갱이가 잘 터져 나온다. 특히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일이 손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도리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 도리깨를 놀리는 솜씨가 좋아야 타작과정이 빨리 끝난다. 제주도의 도리깨는 사진 4와 같이, 크게 손잡이가 달린 중심대 부분인 '어대(또는 장부)'와 중심대 끝에 연결된 타작대 부분인 '아들(혹은 열)' 그리고 중심대와 타작대를 연결하는 '틀레(도리깨 꼭지)'로 구분할 수 있다⁴⁾. 도리깨는 양손으로 중심대 끝 부분을 잡고 타작대인 아들을 어깨위로 넘기면서 명석 위의 농작물을 힘껏 내리치며 타작한다. 대개 농촌에 거주하는 부모세대들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도리깨를 자주 사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장소를 이동하며 활용할 수 있지만, 아들딸 세대인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조작성이 만만치 않다. 말하자면 도리깨질 자체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필요하며, 좌우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내리치는 경우에는 한층 더 숙련된 노련미(경험)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마을길은 제주여성들의 솜씨가 돋보이는 공간이기도 하다.

타작과정이 마무리되면 알맹이와 껍질, 부스러기(예를 들면 유채 가지, 콩각지 등)를 서로 구분하고, 최종적으로는 알맹이들 속에서도 아주 작은 티끌이나 흙먼지 등을 털어 내는 작업이 이어진다. 말하자면, 알맹이 골라내기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작업도구도 체(篩)나 푸는체(키) 따위로 바뀐다(사진 5). 그리고 대개 타작작업은 양이 적을 때는 앉아서도 할 수 있지만, 양이 많을 때는 선 자세에서 힘차게, 그것도 2~3인이 번갈아 도리깨질을 하며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사진 6).

그러나 알맹이 골라내기 작업에서는 보통 앉아서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다. 이쯤 되면,

3) 최유선, 2000, "주택가 길의 사회적 기능", 『地理學叢』, 제28호, 27~37쪽.

4) 김동섭, 2004, 『제주도 전래 농기구』, 민속원, 167~172쪽.

동네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작업자의 한쪽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세상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그만큼 알맹이 골라내기 작업에서는 작업하는 당사자도 정신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쨌든 알맹이 골라내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 동네 행인들이 한두 사람이 모여드는 상황에 이르면, 그야말로 온갖 세상이야기와 살림이야기로 이야기꽃이 피게 된다. 가령 누가 먼저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한쪽이 ‘어느 집안에 결혼식이 또는 대소상(大小喪)이 며칠 남았다느니’, ‘내일 모레 오일장이 서는데, 어떤 농산물을 갖고 가서 팔아야 좋을 것인지’, ‘어저께 물질(잠수일)에서 큰 전복을 하나 놓쳐서 분하다느니,’ 등등 가지가지 늘어놓으면, 또 다른 한쪽이 물음에 맞는 대답이나 의견을 내 놓는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진전되면, 마을길의 한쪽 구석은 정보교환의 장으로 탈바꿈한다.

그런데 이처럼 마을길 한쪽에서 오가는 제주여성들의 대화도 잘 귀담아 들어보면, 정해진 상황에 맞게 서로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도 작업자도 단순히 앉아서 이야기만을 즐기지 상황은 아니다. 행인은 행인대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기도 하고, 작업자는 부지런히 손을 놀리며 나름대로 자신의 의견이나 답변을 개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위안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지나가는 행인도 뜻하지 않은 자리에서 평소의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고, 작업자도 길바닥에서 혼자 작업하는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것이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마을길에서 작업하는 여성도 미처 입수하지 못했던 정보를 얻게 돼서 좋은 점도 있다.

한편, 그림 2를 살펴보자. 그림 2는 마을길에서 주로 작업하는 농산물인 콩, 팥, 녹두 및 참깨의 생산량을 그래프화 한 것으로, 1968~1988년까지 약 30여 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을 선정한 것은 대략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1960년대 말부터 경제성장이 한창 진행중인 1980년대 말까지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에 생산되는 농작물 중에서도 두류(豆類)나 일부 특용작물과 같이 각지 속의 알맹이를 필요로 하는 농산물은 비교적 종류는 적지만, 나름대로 일정한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 콩(대두), 팥(소두), 녹두, 참깨는 물론 유채 등은 많은 농가에서 자가소비는 물론이고⁵⁾, 필요시에는 물물교환이나 판매를 통해 현금화를 꾀하는 아주 유용한 작물이다. 그리고 그림 2에 제시한 농작물들은 현재도 여러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는 것들이다. 여러 농산물 중에서는 한국인의 식탁에 빼놓을 수 없는 된장의 주원료인 콩의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여러 가지 조리에 반드시 필요한 참기름의 원료인 참깨 생산량도 비교적 많다. 콩이나 참깨에 비해 생산량은 낮지만, 팥과 녹두는 주식인 보리밥(또는 조밥)을 맛깔스럽게 하는 주요소이다. 아무튼, 이들 농작물의 공통점은 제주여성들의 섬세한 손놀림에 의한 타작공정과 알맹이 걸러내기 공정을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식탁 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모든 두류와 특용작물이 앞에서 서술한 타작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집안의 식탁 위에 오르는 것이나 혹은 가까운 날에 오일장으로 가지고 갈 몇몇 농산물은 제주여성들이 집 앞의 마을길에서 타작과 마무리 공정을 거치는 것이 예사이다. 따라서 그러한 일을 하는 장소와 공간은 일시적으로나마 제주여성들이 피로를 풀며 평소에 못한 정담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으로도 활용된다는 사실에서, 제주의 마을길은 원래의 주 기능인 통행에 못지 않게 부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5) 유채는 같은 기간 동안에 4개의 농작물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량이 많아서 동일한 단위로 표현할 수 없었던 관계로 생략하였다. 유채 생산량은 예를 들어 1968년에는 41,334t, 1974년에는 18,205t, 1980년에는 15,648t, 1986년 6,225t 등으로 다른 작물에 비하면 상당히 단위가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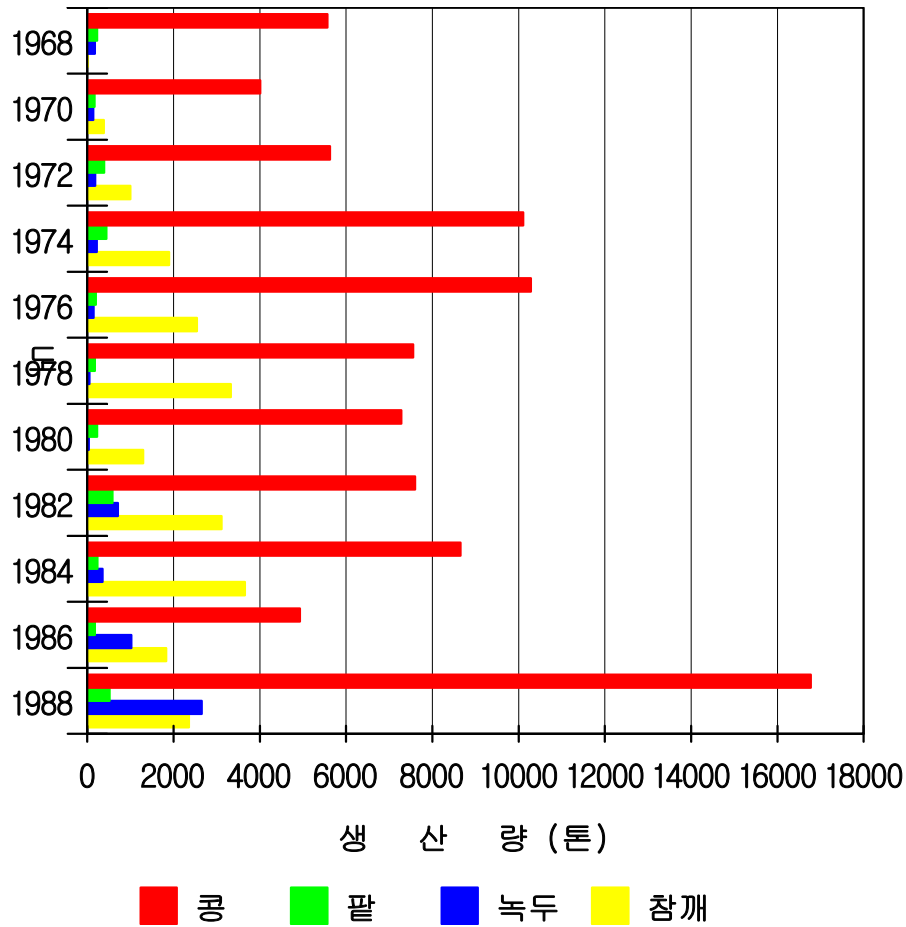


그림 2. 제주도의 주요 두류와 특용작물의 생산량 변화(1968~1988년)
 자료 : 제주도, 각 연도, 『제주통계연보』에 의해 작성.

점이 평소에 우리가 잊고 있거나 미처 생각지 못했던 마을길의 공간성이 아닐까 생각된다.

마을길에서는 농작물 타작과 마무리 공정 같은 일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가장 간단한 일 중의 하나는 날레⁶⁾ 널기, 해산물(미역, 감태, 톳, 오징어, 옥돔 등) 널기 등 햇볕을 이용하여 타작한 곡식을 말리거나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을 말리는 작업이다(사진 7). 한여름에 마을길 한쪽으로 타작한 보리(알맹이)를 명석 위에 풀어놓고 해가 질 무렵까지 말리는 광경은, 또 하나의 다른 마을길을 만들어 놓은 듯한 착각 속에 빠지게 한다. 말하자면 제주여성들이 만들어 놓은 직사각형 명석의 보릿길인 셈이다. 한낮에 보리 알맹이를 당그네(고무래)라는 도구로 몇 번이고 휘젓는 모습(즉 '날레 짓기')이나 널어놓았던 날레를 거두어들이는 모습(즉 '날레 거두기')도 제주도의 농촌을 대변하는 색채적 요소로서 손색없다. 이러한 날레 짓기나 날레 거두기도 한편에서 생각하면, 마을길처럼 길게 이어진 공간이 아니거늘은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런 일거리도 대부분은 제주여성들의 날렵한 숨

6) 날레는 곡식을 바람에 쒀거나 햇볕에 말리기 위하여 명석에 널어놓은 것을 말한다(濟州道, 1995, 『濟州語辭典』, 제주도, 91쪽.).

씨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제주도의 마을길은 때때로 제주여성들의 손길을 재촉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면서도,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은근히 사로잡아 바쁘게 달려온 과거를 잠시나마 잊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또한 평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마을길이 가져다주는 의미 있는 공간성이라 해야 할 것이다.

2-2. 빨래터 : 대화와 상념의 노동공간

제주도의 빨래터는 육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육지의 경우는 주로 흐르는 시냇가에 나가 빨래를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해안가에서 솟아나는 용천수(泉水)나 인위적으로 만든 봉천수(대개 주민들은 ‘물통’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빨래를 했다. 제주도에서는 빨래를 ‘서답’이라 한다. 그래서 보통 바구니에 빨랫감을 넣고 바닷가나 봉천수로 향할 때, 혹시라도 지나가던 동네사람이 행선지를 물으면 대개 ‘OO로 서답하러 간다’는 식의 답변으로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곤 했다.

상수도로 수도물이 공급되기 이전인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제주도에서는 물이 너무나 귀하여 빨래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가족들의 옷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빨랫감을 한곳에 잘 모아두었다가 정기적으로 용천수나 봉천수에 마련돼 있는 빨래터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사진 8). 특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오면, 우리의 어머니들은 집안내의 빨랫감이란 빨랫감은 모조리 꺼내들고 빨래터로 향해야만 했다. 물론 빨래하는 일은 오로지 여성들의 몫이었으며, 특히 어른들의 옷이나 이불빨래 등 집안의 큰 빨랫감은 어른인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도맡아 해야만 했다. 그래서 제주도 속담에는 ‘여자로 나느니 쉼로 나주(여자로 낱을 바엔 소로 낱지)’라는 속담이 있듯이, 제주여성들은 쉴 새도 없이 많은 할 일들이 밀려드는 게 현실이었고, 또 제주여성들은 그러한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 과거의 제주여성들에게는 집안 일은 물론이고 밭일과 잠수일 등 가장 아난 가장으로서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았던 것이다.

아래의 글은 빨래터의 상황을 잘 묘사한 어느 제주여성의 글이다⁸⁾. 당시 빨래터의 분위기를 잘 느껴 볼 수 있는 글이어서, 여기에 인용하고자 한다.

...긴 겨울이 끝나고 춘삼월이 되면 우리 어머니들은 겨우내 입었던 두꺼운 무명옷과 때에 찌든 이불깃을 들고 빨래터를 찾으셨다. 이웃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빨래터를 찾게 되고 약속이나 한 듯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빨래를 하는 여인들로 붐볐다. 이때 약방의 감초처럼 빨랫감 속에 따라오는 것이 빨랫방망이였는데,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빨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도구였다.(11쪽)

빨래방망이는 ‘마깨’라고도 불렀고 비누가 부족했던 그 시절에는 어느 가정에서나 없어서는 안될 생활필수품 중의 하나였다. 빨랫방망이로 두드리는 단골 메뉴는 광목으로 만든 이불깃과 무명옷, 속내의, 논밭에서 흙으로 범벅이 된 덩치 큰 옷들이 많았으며 걸레야말로 동네북처럼 매일 얻어맞는 가엾은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풍경은 주로 겨울이 끝나갈 무렵, 물이 흐르는 냇가에서나 공동샘터에서 볼 수 있었으며 동네 아낙네들은 시집살이 이야기며 이웃마을의 소문으로 꽃을 피웠다...(11쪽)

7) 고재환, 2001, 『제주속담총론』, 민속원, 62쪽, 179쪽.

8) 김강임, 1998, ‘빨래터’(제주시, 『되돌아본 그때 그 시절—제주인의 슬기로운 삶 이야기—』, 제주시, 11~15쪽.

윗 글에서는 봄이 오는 길목에서 제주여성들이 집안의 모든 빨래를 해야 했던 배경과 빨래터에서 흔하게 오가던 정담들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인용문에서는 빨래터를 ‘물이 흐르는 냇가’나 ‘공동샘터’라 말하고 있으나, 전자의 경우는 필자의 생각과 조금 다른 듯 하다. 제주도 내에서도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냇가는 몇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제주시의 산지천과 외도천 서귀포시의 연외천(일명 선반내라고도 함)과 도순천(일명 강정천), 한림읍의 용포천(일명 건남내, 월계천) 그리고 남원읍과 서귀포시 사이를 흐르는 효돈천 등 일부 하천을 제외하면(사진 9)⁹⁾, 영구하천(永久河川, permanent stream)¹⁰⁾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산지천을 비롯한 6개의 하천도 하천의 종류나 하류 구간에서 지하수나 용천수의 용출에 의해 물줄기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지부의 하천과 같이 전구간을 흐르지 않고 중·하류의 일부구간에서만 흐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이들 하천도 계절에 따른 수량 변화가 커서, 마음먹은 대로 아무 때나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인용문에서와 같이 ‘물이 흐르는 냇가’에서 빨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6개의 하천을 끼고 있는 주변지역의 여성들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하천을 끼고 있는 주변지역의 제주여성들은 도내의 다른 지역의 여성들보다도 크게 혜택을 입은 여성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내의 여성들도 해안마을의 경우는 해안 용천수가 있는 바닷가로, 중산간 마을은 봉천수(또는 용천수가 있는 장소)를 찾아서 빨래를 해결하였다. 물론 봉천수나 용천수가 있는 장소에는 사진 8과 같이 빨래터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 잠깐 빨래터의 풍경을 스케치 해보자. 보통 중산간 마을의 봉천수의 경우는 주로 우마용(牛馬用)으로 사용하는 봉천수의 한쪽에 마련돼 있다(사진 10). 즉 우마용 봉천수의 한쪽으로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마련돼 있는데, 이 디딤돌은 우마가 물을 먹는 동안 사람들이 기다리는 장소이기도 하고 여성들에게는 빨래하는 장소로도 이용된다(사진 11). 특히 왕래용 디딤돌 앞으로 몇 개의 판돌을 마련해 두는데, 이 판돌은 빨랫감을 올려놓는 용도로 쓰인다. 마을에 따라서는 빨랫감을 1~2차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빨래터를 2군데로 구분해 놓은 경우도 있었다(그림 3). 이것은 아무리 우마용 봉천수라고 하더라도, 비누나 양젓물을 사용하여 빨래를 하고 나면, 이들 성분이 물 속에 가라앉게 되어 나중에는 우마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는 우마용 봉천수에서 흙과 오물을 깨끗이 털어 내고, 그 후에 옆에 별도로 마련된 2차 빨래터에서 비누나 양젓물을 사용해서 더욱 더 깨끗하게 빨래를 하도록 했다¹¹⁾. 물론 이 경우에는 2차로 사용할 빨래용 물을 우마용 물통에서 운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천수(天水)에 의존해야만 하는 중산간 마을 여성들의 고민거리였다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정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지혜였음을 이해하게 된다.

표 1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의 봉천수 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마을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밝혀낸 점을 정리해 보면, 봉천수는 여러 개가 있지만 식수용과 우마용을 구분하고 있었으며, 우마용에는 대부분이 목욕용이나 빨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구안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봉천수의 다소(多少) 여부는 마을의 크기나 인구수와도 비례

9)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06, 『한라산의 하천』 (한라산 총서 VIII), 45쪽.

10) 학술적으로 연중 유출수가 있는 하천을 말하며 항상하천(恒常河川)이라고도 한다(한국지리정보연구회편, 2004, 『자연지리학사전』 (개정판), 한울아카데미, 402쪽.).

11) 제주시 애월읍 용흥리의 사례로서, 동 마을 출신인 강춘일(여, 55세)씨와의 인터뷰 내용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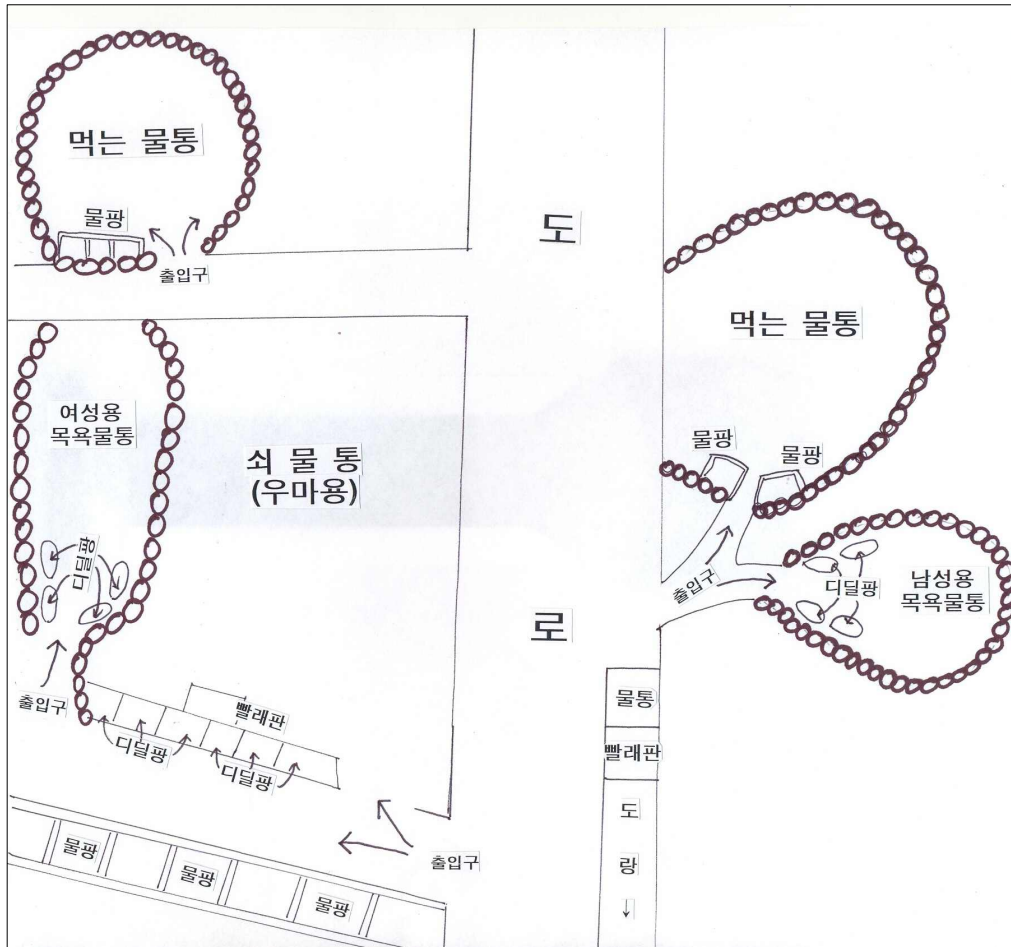


그림 3. 빨래터가 2중으로 구분된 중산간 마을의 사례(제주시 애월읍 용흥리의 사례)
 자료 : 현지 청취조사(2006년 10월 15일)에 의해 작성.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식수용이나 우마용 물 못지 않게 목욕용이나 빨래용 물의 확보도 중요했다는 사실이다.

한편, 해안가의 용천수에 마련된 빨래터는 다소 분위기가 다르다. 용천수의 물가는 물이 솟아나는 주변지형과도 결부되어 다양한 형태의 빨래터가 조성된다. 예를 들면, 물이 용출(湧出)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길게 직선 형태로 조성되기도 하고 원형이나 타원형의 형태로 조성되기도 한다(사진 12). 그렇지만, 용천수의 빨래터는 어떤 형태가 되던 간에 기본적으로는 물이 계속 용출하면서 바다 쪽으로 흘러나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빨래하는 물은 항상 새롭게 바뀌게 돼 있다. 그리고 용천수의 빨래터는 직선형태이든 원형·타원형의 형태이든 간에 여성들이 마주 앉거나 혹은 좌우 양옆으로 앉아 대화를 나누며 빨래할 수 있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것은 그만큼 물이 풍부하여 여러 사람이 동시에 빨래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안 용천수에 마련된 빨래터로는 여성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빨래하러 가는 풍경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제주도 내의 용천수는 1998~1999년에 걸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표 2와 같이 전체 911개

표 1. 중산간 마을의 용천수와 빨래터의 유무실태(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사례)

용천수 이름	위치 (자연마을 단위)	용도별 개수(개) 및 유무실태(O, ×)				잔존유무 (조사시점)	비 고
		식수용	우 마 용				
			개수	목욕용	빨래용		
① 꽃바구리물	동부락	1	1	○	○	○	주변지역 정리로 다소 축소돼 있음
② 흘 왓	동부락	1	1	○	×	○	
③ 동부락물통	동부락	2	1	○	○	×	
④ 서부락물통	서부락	2	1	○	○	×	
⑤ 새물통	서부락	2	0	×	×	△	일부 남아 있음
⑥ 물모릿도	서부락	0	1	○	○	×	
⑦ 어구왓물통	서부락	1	1	○	○	×	
⑧ 도래(도리)못	상부락	1	1	○	○	△	일부 남아 있음
⑨ 군 물	사계리 지경	2	1	○	○	○	도로 확장으로 다소 축소돼 있음

자료 : 2006년 7월 31일(월) 마을이장과 2006년 9월 8일(금) 마을 향장(鄉長)과의 인터뷰 등에 의해 작성.

소로 확인되고 있다. 용천수는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산간 지역이나 산간지역에 비해 해안지역에 압도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주 먼 과거부터 사람들이 주로 해안지역에 모여 집촌(集村)을 형성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제주도 내의 전체 취락이 환상(環狀)의 형태로 나타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과거 해안마을에서는 비교적 용천수가 풍부하여 식수는 물론이고 목욕용이나 빨래용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해안마을이라 해도 마을 중심부에서 용천수가 있는 해안까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들이 많아서, 제주여성들이 물을 길어오거나 빨래를

표 2. 제주도 내 지역별 용천수의 분포실태(1999년)

(단위 : 개소, %)

지 역 별	해안지역 (해발 200m 이하)	중산간지역 (해발 200~600m)	산간지역 (해발 600m 이상)	합 계
제 주 시	111(78.2)	23(16.2)	8(5.6)	142(100.0)
서귀포시	151(89.9)	12(7.1)	5(3.0)	168(100.0)
북제주군	378(95.0)	14(3.5)	6(1.5)	398(100.0)
남제주군	201(99.0)	—(0.0)	2(1.0)	203(100.0)
합 계	841(92.3)	49(5.4)	21(2.3)	911(100.0)

자료 : 제주도, 2000, 『2000 환경백서』, 제주도, 110쪽에 의해 필자가 일부 수정 보완함.

하러 왕래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뒤따랐다는 것이다¹²⁾.

보통, 빨래터에서는 제주여성들이 디딤돌에 앉은 자세로 빨랫감을 판들에 올려놓고 물을 적시며 빨래방망이로 두드리고 손으로 문지르며 깨끗하게 씻어낸다. 아울러 빨랫감은 그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 과정을 거친다. 가령 흙이 많이 묻은 작업복(남성용 갈중이나 여성용 몸빼 등)은 1차로 물에 담그며 흙을 깨끗이 떨어진 후에, 2차로 양젓물이나 빨래비누를 사용하여 남아있는 이물질이나 때를 벗겨낸다. 물론 더욱 깨끗이 해야하는 속옷이나 내의 등은 3~4차에 걸쳐 비누칠과 행굼 과정을 걸치는 것이 보통이며, 흐르는 물에 당분간 담가 두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중산간 마을이나 해안마을의 빨래터도 제주여성들에게는 삶의 공간의 연장선상에 있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제주여성들은 빨래터에서도 가족들의 앞날 걱정, 시부모와 친부모의 건강걱정 등 뇌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념을 지닌 채 빨랫물에 손을 담그곤 했다. 그런 와중에도 동료들과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빨래터는 제주여성들에게 상념의 공간이자, 대화의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3. 장터 : 교환경제를 위한 노동공간

여성들에게 시장이 안겨다주는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 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들에게 현실적인 경제활동의 장이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다. 시장에 발을 내디뎌 보면, 남성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더 강렬하게 다가온다. 시장에 대해 오랜 연구를 해온 한 전문가에 따르면, 시장은 '사람과 사람, 공간과 공간을 한데 묶는 끈'이라 했다¹³⁾.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장에 가면, 평소에 자주 만나지 못하던 사람들이나 혹은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나와서 서로를 기다리곤 했다. 나아가 장날이 되면, 이 마을 저 마을, 특히 제주도에서는 시장주변의 해안마을은 물론, 중산간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합세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시장은 작은 지역사회 안에서도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network)라 할 만하다.

시장은 물질적 욕구의 해결공간이자, 나름대로 정신적 안도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동시에 경제적인 고민과 걱정이 일시적으로 쌓이는 공간이면서, 또 항상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평소의 고민과 걱정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들이 시장으로 향할 때는 즐거움과 근심스러움을 동시에 짊어지고 가게 된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돌아올 때는 일부의 근심거리를 해결하여 즐거운 마음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의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때문에,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돌아와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집에서 생산한 상품(농·수·축산물)의 가치와 시장가격과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상설시장, 즉 매일시장이 비교적 큰 읍내라면 어디든지 한두 군데는 존재한다.

12) 예를 들어, 제주시 애월읍 신업리는 지도상에서는 분명히 해안마을에 해당되지만, 마을 중심부에서 해안용천수가 있는 장소까지는 거의 왕복 1.5km의 거리를 왕래해야만 했다. 거기에서 해안용천수로 향하는 길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는 비포장도로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물을 허벅지로 운반하거나 무거운 빨래를 지고 오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한다(성봉추(여, 73세, 전 신업리 거주)와의 인터뷰 내용에 의함.).

13) 정승모, 1992, 『시장의 사회사』, 웅진출판, 18쪽.

여성들에게는 그만큼 편리해 진 것이 사실이며, 그에 따른 여성들의 노동공간 내지는 활동공간도 이전에 비해 훨씬 넓어진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질적 노동시간의 연장에 따라 여성들의 임금도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의 걱정과 근심, 혹은 가내(家內)의 불행이 다 사라지지 않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다.

제주도에는 상설시장이 생겨나기 이전에 먼저 정기시장이 형성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일(시)장 개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오일장은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기 직전인 1906년경부터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윤원구(尹元求) 군수가 부임하면서 도민들의 물자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읍내를 비롯 삼양, 이호, 외도, 애월, 조천, 김녕, 세화 및 서귀포 등에 개설한 것이 효시가 되고 있다(사진 13)¹⁴⁾. 물론 오일장이 개설되기 전에는 제주도민들 서로가 생산한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의 일부를 맞바꾸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말하자면 물물교환 방식이 행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오일장터에서는 서로가 생산자이고 소비자라 할 수 있다. 제주도민들은 과거로부터 자급자족에 의존했던 생활방식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상황이었고, 그 결과 오일장터로 가지고 오는 생산물도 대부분은 농·수·축산물이나 임산물이었다. 따라서 오일장터에서는 서로가 생산한 물품 중 잉여분(剩餘分)을 가지고 와서 팔고, 또 자신이 필요한 것을 사 가지고 가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제주도 내의 시장실태가 어떠한지,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기로 하자. 표 3은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 말까지 제주도 내의 시장과 점포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950년대 말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은 전국적으로 볼 때 한국동란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웠던 시기였으며, 제주도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고 1970년대 말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기반이 한창 조성돼 가는 한편,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모두가 가난에서 탈출하여 잘살기에 동참하려는 매우 역동적인 시기였다. 제주도 역시 그 역동적인 시기의 한 축에 있었던 지역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서민들의 경제활동의 장(場)인 동시에, 가족들을 위한 노동공간인 시장의 특성과 변화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기라 말할 수 있다.

1950년대 말 제주도 내의 시장은 상설시장이 4개소에 630점포가, 정기시장이 23개소에

표 3. 1950년대 말~1970년대 말까지의 제주도내 시장 및 점포수 실태

연도(연)	상설시장(개소)		정기시장(개소)		합 계(개소)	
	시장수	점포수	시장수	점포수	시장수	점포수
1959	4	630	23	950	27	1,405
1963	5	301	22	1,294	27	1,595
1966	5	301	25	1,295	30	1,596
1969	5	498	25	686	30	1,184
1972	8	842	25	834	33	1,676
1975	11	1,241	24	1,067	35	1,676
1977	12	1,291	20	935	32	1,676

자료 : 濟州道, 1982, 『濟州道誌』(下卷), 濟州道, 183쪽에 의해 간략화.

14) 진관훈, 2004,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도서출판 각, 42쪽.

950점포가 입점(立店)하여 장사하고 있었다. 그 이후에 상설시장이나 정기시장은 크고 작은 변화를 동반하게 되지만, 그 특징을 단적으로 요약하면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걸쳐면서 상설시장이 점점 증가하는 한편, 정기시장은 점점 감소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오일장으로 대표되는 정기시장이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25개소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다가 그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시장에 등장하는 상품도 농·수·축산물과 임산물에서 공산품으로 바뀌게 되어 결국 시장경제의 성격도 바뀌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더불어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활발해질수록 일상생활에서는 다양한 물품이 필요함과 동시에, 구입해야 할 시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는 정기시장은 발전된 사회를 지지하는 중심 축(軸)이 되지 못하고, 항상 필요한 물건을 수시로 구입할 수 있는 상설시장이 주목받으며 중심무대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표 4에서는 표 3에 나타난 정기시장의 쇠퇴실태를 한층 더 실감 있게 보여준다. 제주도 농어촌지역의 경제를 떠받치는 한편 많은 제주여성들의 일터라 할 수 있는 오일장이 1990년대로 접어든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라져버린 결과, 결국 제주시 오일장을 비롯하여 14개소만 남게 되었다. 나아가 2006년 시점에서는 제주시, 한림, 세화, 서귀포시(중심부), 중문, 대정, 표선, 고성, 성산 등 9개소로 감소되는 비운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오일장의 숫자가 감소한 만큼, 제주여성들의 경제활동의 역동성도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어서 제주도 오일장터의 풍경을 그려보자. 오늘날의 오일장터는 현대적 시설(상하수도, 차양시설, 인도와 차도, 주차장 등)들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사람들의 움직임도 나름대로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인다(사진 14). 그러나 과거의 오일장터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 같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장사용 좌판과 진열대 등이 다소 흐트러진 모습은 비쳐지지만, 웬지 모르게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어 보이고 정이 넘쳐흐르는 듯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젊은 사람이건 나이를 지긋하게 먹은 사람이건 자신이 가지고 간 물건을 앞에 두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미소를 띄우며 계속해서 눈길을 보낸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저기서 자신이 가지고 온 물건을 싸게 팔 테니 구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행인들이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주변은 왁자지껄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도 제주여성들의 목

표 4. 제주도 내 오일시장 실태(1990년대 이후)

소재지	개장일	소재지	개장일		
제주시	2, 7, 12, 17, 22, 27일	서귀포시	4, 9, 14, 19, 24, 29일		
한림	4, 9, 14, 19, 24, 29일	중문	3, 8, 13, 18, 23, 28일		
북제주군	세화	5, 10, 15, 20, 25, 30일	남제주군	대정	1, 6, 11, 16, 21, 26, 31일
	하귀	1, 6, 11, 16, 21, 26, 31일		표선	2, 7, 12, 17, 22, 27일
	애월	3, 8, 13, 18, 23, 28일		고성	4, 9, 14, 19, 24, 29일
	고산	5, 10, 15, 20, 25, 30일		성산	1, 6, 11, 16, 21, 26일
	신창	3, 8, 13, 18, 23, 28일		남원	3, 8, 13, 18, 23, 28일

* 행정구역은 2006년 6월말까지 이어지던 체제이며, 북제주군의 하귀, 애월, 고산, 신창 오일장과 남제주군의 남원 오일장 등은 1990년대에 들어와 폐장됨.

자료 : 제주도, 1993, 『제주도지(제2권)』, 제주도, 868쪽./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濟州道誌(第4卷)－산업·경제－』, 제주도, 423쪽 등에 제작성.

소리는 한층 더 크게 행인들의 꺾전을 울리게 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도의 오일장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산자이고 소비자였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의 도민들의 생업은 주로 농업이었고, 부분적으로 어업이나 임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일장터의 이용자는 소농민(peasant farmers)으로 구성된 소비자로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역할을 동시에 했다고 볼 수 있다¹⁵⁾.

제주도에서 다소 예외라고 한다면, 제주시나 서귀포시 또는 각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일부 제조업을 비롯한 상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대부분의 농어민들은 장날에 장터 한쪽 구석에 자신이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앉아 있으면 판매자가 되었고, 자신의 것을 팔고 나서 집안에 필요한 물건을 사게 되면 소비자로 변신하는 상황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물건 팔기'를 도맡아 하는 사람은 우리의 어머니이자, 할머니라 할 수 있는 제주여성들이었다. 1970년대까지의 이런 상황은 결코 제주도만의 모습은 아니었다. 전국의 농어촌지역에서는 어디를 가도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장터의 모습이었고, 전국적으로는 그 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장터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읍내의 오일장터에는 주변 마을로부터 많은 농어민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물건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또 팔고 사려는 의욕으로 상당히 활기가 넘치게 된다. 특히 추석이나 설을 앞둔 대목장에서는 평소에 볼 수 없는 다양하고 진귀한 물건들도 등장한다. 따라서 제주여성들의 손길도 부산하게 움직이게 된다. 이런 장날에는 집안 제사를 지내야 할 제수용(祭需用) 물건도 구입해야 하고, 또 제수용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자신의 물건도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물건이라도 부지런하고 재빠르게 움직여야 좋은 물건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같이 간 동료나 이웃사람끼리는 어느 편에 가면 어떤 물건이 얼마나 싸게 파는지, 열심히 정보를 교환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모습 역시, 제주여성들의 부지런한 일면이다.

한편 오일장터에는 어떤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 일반농가라면 다양한 농산물 중 보리쌀, 쌀, 조(차조, 메조)콩, 팥, 녹두, 참깨, 유채, 지슬(감자), 감저(고구마), 양파, 양애(양하) 등과 돼지, 닭, 토끼, 염소 등일 터이고, 어업을 겸업으로 하는 겸업농가에서는 수산물 중 도미, 옥돔, 갈치, 자리돔, 우럭, 고등어, 오징어, 볼락, 복어, 멸치, 전복, 소라, 어랭이(놀래미)와 미역, 톳, 우미(우뭇가사리) 등 제주연안에서 주로 많이 잡히는 어종과 패류·해조류들이며, 임업을 겸업으로 하는 겸업농가의 경우는 표고버섯을 비롯하여 장작(신탄), 숯, 고사리, 오미자 등을 판매용으로 들고 나왔다. 이외에 보통 농가가 아닌 상인, 즉 정기적으로 오일장터를 따라다니는 일반 상인들은 옷(옷감)과 이불, 농기구(낫, 호미, 작두, 쟁이, 목쟁이, 쟁쟁이, 쇠스랑, 갈퀴, 골채[삼태기], 톱, 삽 등), 신발, 옹기(사발, 물잔, 물허벅, 단지, 대소항아리[물항, 장항, 쌀항] 등),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 및 잡화(소·대형 대바구니, 뉘, 좁팍[솔박], 빗자루, 맥[떡서리], 글쟁이[갈퀴], 푸는채[키], 총채[채(籬)의 일종], 대체[大籬], 초석, 주전자, 머리빗, 참빗, 성냥, 담배, 과자 등)를 들고 팔러 나온다. 이외에도 옛장사, 고물장사, 뺨튀기장사, 신발·가방 수선공 등등이 각기 적당한 장소를 차지하여 손님들을 불러들인다.

오늘날의 오일장에는 말 그대로 거의 없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임·수산물과 다양한 공산품은 종류별로 장터의 위치가 달라지고 먹거리장터, 화훼장터(꽃시장), 할머니장터 등 내용물과 판매하는 연령에 따라서도 쉽게 접근하여 싸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특히 굴나무, 유자나무 및 유채 꽃이나 남녀용 갈옷을 비롯하여 갈천을 이용한

15) 이재하·홍완순, 1992, 『한국의 場市—정기시장을 중심으로—』, 민음사, 42쪽.

각종 모자나 가방 등은 제주도의 오일장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상품들이 다¹⁶⁾.

대개 오일장터는 온갖 정보가 다 모여드는 정보의 집산지 기능을 겸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만들어내고 전파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성들이다.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오일장터는 예나 지금이나 선거 철에 빼놓을 수 없는 공간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여러 후보자들은, 여성들이 많이 모인 오일장터에서는 여성유권자들을 향한 공약(公約)을 많이 내 걸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에서는 더욱 강렬하게 나타나고 후보자들은 더 열성적으로 오일장터의 제주여성들을 쫓아다닌다. 몇 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다양한 선거는 제주의 오일장터와 제주여성들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든다. 아울러 선거관련 시기의 오일장터는 제주여성들이 평소와는 다른, 일시적으로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희망의 공간으로도 변신하게 된다.

오일장터에서 일하는 제주여성들은 너무도 많다. 그러나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삶을 그리는 것이 좋을지 언뜻 혜안(慧眼)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오일장터에서 오랜 세월을 버티며 굳세게 생활해온 어느 할머니의 삶을 통해 한 제주여성의 노동의 지속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할머니의 사례를 통하여, 오일장터가 궁극적으로 노동의 대가를 얻어야만 하는 공간으로서의 열린 공간이자, 현실적인 생활공간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음미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약초를 캐다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오일장에서 팔며 생계를 꾸려온 양순자(가명, 81세) 할머니의 사례를 아래에 인용하고자 한다(사진 15)¹⁷⁾.

양할머니는 2005년 조사시점에서 81세의 제주여성이었다는데, 32살(1956년)때부터 약초를 캐다가 오일장에서 팔면서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¹⁸⁾. 그러니까, 양할머니는 약 50년 동안 오일장에서 약초장사를 하는 셈이 된다. 이 할머니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여러 오름은 물론이고 해안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으로 약초를 캐러 다니기도 했다. 오로지 한길만을 걸으며 남편을 봉양하고 자식들을 길렀다. 이런 점에서 양할머니가 제주여성으로서 독립성과 강인함을 바탕으로 한평생 살아왔음을 이해할 수 있다.

처음, 오일장에서의 약초 장사가 결코 순탄치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약초를 팔기 위한 특별한 말주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오일장터에 의지할 수 있는 친인척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할머니 혼자서 결정하며 개척했던 것이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나마 양할머니가 허리를 내리고 앉아있을 수 있는, 오일장터라는 공간이 있어서 천만다행이었다. 다시 말해 양할머니가 약초를 캐고, 팔러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오일장터라는 열린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양할머니에게 오일장터의 존재는 엄청난 행운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여러 사람들에게 약초를 팔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원천(源泉)이 바로 도내의 오일장터였던 것이다.

양할머니는 나중에 자신이 약초를 캐고 오일장터에서 진열하며 팔았던 소박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면서 같이 약초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과거, 양할머니는 자신도 어떻게 약초를 팔아야 좋을지 모르고 머뭇머뭇 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일장터에서도 어디에다가 팔 장소를 정해야 좋을지, 캐온 약초는 어떤 방식으로 진열하여 좋을지를 몰

16) 주영하·전성현·강재석, 1996, 『한국의 시장—사라져가는 우리의 오일장을 찾아서—』(제3권 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광주 편), 공간미디어, 267쪽.

17) 유철인, 2006, “약초할머니의 삶과 약초 이야기”(제주도·한라생태문화연구소, 『한라산이야기』(한라산 총서 VIII), 226~254쪽.

18) 유철인, 2006, 앞 논문, 226쪽.

랐을 것이다. 양할머니는 그 당시 얻었던 소중한 경험을 젊은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면서, 약초 장사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세상은 어려울수록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양할머니의 생활철학을 읽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은혜를 입은 젊은 사람들도 또 양할머니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상황이 더불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오일장터는 사람과 사람들의 인연이 맺어지고, 또한 한번 맺어진 인연은 평생 소중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다가온다. 최근에 정기시(定期市)를 꾸준히 연구해온 어느 학자는 오일장과 같은 정기시는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투영체(投影體)이기 때문에, 사회와 경제가 발전한 오늘날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저기 (정석) 비행장 근처 오름, 거기가 정의오름인가? 그 오름에 가면 이만씩 한 것들[더덕]을 캐는데, 그 때는 산에 지금처럼 풀이 없어, 내창에도 풀이 별로 없고.(228쪽)

약초 캐러 제주도 하나 다 돌았지. 해안도로로 다니고, 해안도로 없을 때도 다 다녔어. 요즘에는 차 있으니까 막 돌아다녀. 막 캐어. 그렇게 다닌 사람들이 다 말해부니까, 다 말해버리지. 잘 가는 곳은...거기 김녕 위에도 잘 가고, 정석비행장에도 잘 가고. 바닷[바다] 근처에도 막 많아. (약초가) 중산간에도 많지만, 바닷 쪽에도 많아. 거막오름 [거른오름] 아래, 오름 있는 곳에는 다 있더라. 약초 캐 때 벗하고 갈 때도 있고, 혼자 갈 때도 있고, 그 때는 약초 캐러 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으니까.(229쪽)

난 더덕 하면서 바로 장사를 했주. 캐어서(장사하는) 사람들 줘서 돈 받아본 적은 없고, 그대로 팔았지. 다 그대로 팔았어. 그 때는 아무 곳이나 앉으면 장터에서 자리를 잡았지. 아무데나 앉아서 그 목이 괜찮다고 생각되면 거기서 자리 잡아서 팔고 했지. 저기 동쪽의 장에 가도 그렇게, 저기에 가도 그렇게. 여기서 몇 군데나 했는지는 모르고. 가는 데마다, 그 때 장터는 심은 터니까. 우리도 거기는 돈 줘서 산 게 아니지. 심은 터들이지 그냥. (제주시 오일장에서) 그 약초 허는[파는] 사람들, 전부 내가 장사를 시켜 준 사람들. 계도 한 3~4년에서 5년 되어 가니까, 다 집들 장만했더라. 때도 굶던 사람들이 다 집 마련했지. 집도 정말 좋게 마련했지.(230쪽)

(제주시 오일)장에 저쪽 귀퉁이 길 건너에 앉은 큰 아이도 (산에) 가면 더덕을 캐오고. 여러 개 캐오면 어떻게 나한테만 가져와. 그러면 나한테 와서 주지 말고 장사를 하라고 해주게. 장사할 자리가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리 나면 말해준다고 했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해주면서 장사를 시킨다고 나한테 막 뒤편들 허여.(230~231쪽)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⁹⁾. 오일장터는 특정지역의 민속을 끌어 모은 집합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오일장터는 지역민속과의 결합도가 아주 강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오일장터에는 그러한 민속을 창조하는 지역주민들이 항상 왕래한다. 따라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어느 지역의 오일장터도 축제의 장으로 변신할 수 있고, 그 축제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날 정도라면 그 지역은 발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도라면, 오일장터가 지역발전을 위한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오일장터에는 항상 수많은 여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오일장터는 쉽게 축제의 장으로 변신할 수 있다. 축제의 결과가 지역발전으로 이어진다면, 그 이상 좋을 일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제주도 내에

19) 전경숙, 2006, “전라남도의 정기시 구조와 지역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9권 제1호(통권 17호), 113~126쪽.

남아 있는 오일장터도 몇 개 되지 않는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심각하게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오일장터의 제주여성들이 지역주민들의 결속도를 높이고, 오일장터를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도의 오일장터가 축제의 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열려 있는 역동적인 공간에서 우리 제주여성들의 파워(power)를 느끼게 될 것이다.

2.4. 들녘 : 생활자원 조달을 위한 노동공간

제주도의 들녘은 제주여성들에게 어떤 일거리를 안겨주던 공간이었을까. 그리고 제주도의 들녘은 제주여성들의 어떤 희로애락을 담고 있을까. 평소 제주도의 들녘은 늘 푸르게만 보인다. 푸른 초지대와 꽃자왈 지대 그리고 해발고도를 더해갈수록 숲지대가 연속적으로 이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사진 16). 해안지역의 들녘은 주로 농경지로 개발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녹지(임야 또는 숲지대)는 적다. 그러나 해안지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임야나 덩불 숲이라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는 필요 불가결한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주도의 들녘은, 제주여성들에게는 항상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쌓아두고 기다리던 생활자원(生活資源)의 보고(寶庫)였다. 그 들녘이 해안지역에 위치하든,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든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제주도민들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주고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던 공간이었던 것이다. 위치적으로나 거리적으로 보면, 해안지역의 들녘은 주로 해안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중산간지역의 들녘은 중산간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해안마을 사람들에게도 크게 도움을 주던 생활자원의 공간이었다. 이처럼 중산간지역의 들녘은 제주도 전체면적에서도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크기 때문에, 많은 마을사람들의 생활자원을 조달하던 공간으로 작용했다.

제주여성들이 해안지역과 중산간지역의 들녘으로부터 늘 갈구하던 생활자원들은 대체 무엇들이었을까. 전통사회에 기반을 두고 생활하던 과거를 전제로 나열해 보면, 우선 지들커(빨감: 빨낭[장작], 솔잎, 낭[나무]뿌리, 삭다리[썩은 나뭇가지] 등), 출(꿀), 새(띠, 茅) 그리고 각종 산나물(고사리, 고비, 제피[계피], 양하, 두릅, 팽마농[달래], 냉이, 맹게순[청미래덩쿨순], 솔순 등), 약용식물(배채기[질경이], 표고버섯, 영지버섯, 쑥, 오갈피, 더덕, 삼마[산마], 하늘레기[하늘타리], 인도꼬장[인동초] 등) 및 야생열매(삼동[상동나무 열매], 뽕이[뽕], 탈[산딸기], 구기자, 오미자, 칙, 똥꼬리[절레나무순], 모람[모람나무 열매], 개불[산괴불나무 열매], 불래[보리수나무 열매], 마망구슬[맥문동열매] 등)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제주도의 들녘은 제주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정도의 중요한 생활자원들을 제공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작용해 왔다. 위에 열거한 생활자원들이 모두 여성들에 의해서만 채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손을 거치지 않는 자원도 거의 없다.

먼저 빨감은 평소 정지(부엌)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여성들의 손에 의해 수집되는 솔잎과 삭다리가 주를 이룬다. 물론, 평소의 빨감이 솔잎과 삭다리 뿐만은 아니다. 이들과 함께 보리낭(짚)과 조짚, 콩깍지와 유채낭(나무) 등이 주요 빨감이었다. 보리짚이나 조짚, 콩깍지와 유채나무는 농작물의 씨앗을 떨어낸 후에 남는 찌꺼기이다(사진 17). 이들과 함께 솔잎은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가정용 빨감이었으며, 특히, 보리짚과 솔잎은 제주도 농어촌지역의 가정이라면 거의 동일한 빨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리짚의 경우는 여름철 보리탈곡을 하고 나면 당연히 대량으로 남는 것이어서, 집안 내 어느 한곳에 늘(날가리)을 만들어 쌓아놓고는 일년 내

내 사용하곤 했다(사진 18). 물론 보리짚은 단순히 빨감으로만 사용하지는 않았다. 가령, 거름을 만들기 위하여 통시(돼지우리)나 쇠(소)막에 일정량을 정기적으로 깔아주는 자재로도 사용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안 내의 건물벽을 보수하는 보조자재로도 사용했다. 이처럼 보리짚은 중요한 빨감이면서 거름생산이나 건물벽의 보수재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

보리짚과는 달리, 솔잎은 해안과 중산간 들녘에서 여성들이 열심히 굵어 모아야만 하는 빨감이었다. 따라서 소나무가 밀집해 있는 임야지(林野地)는 우선적으로 여성들이 즐겨 찾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부모들은 심지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여자아이들에게도 솔잎을 굵어오라는 명목으로 야외의 들녘으로 내몰곤 하였다. 집안 내 어머니의 경우는 특별한 일이 생기기 이전에는, 바쁜 농사일 때문에 마음먹고 솔잎을 채취하러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한동안 쌓아두었던 솔잎이나 삭다리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는, 한 집안의 모녀들이 대거 솔잎이나 삭다리 등 빨감을 하러 나서는 일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안내의 남자들은 마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세 등등한 모습으로 들녘으로 나가는 어머니나 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이처럼 제주도 야외의 들녘은 제주여성들과 떨어질 레야 떨어질 수 없는 공간이었다.

솔잎을 채취하러 들녘으로 나간 여성들은 자신의 등짐으로 한 짐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한 장소에 굵어모은다. 대략 한 짐 정도의 양이 되면, 짚어지고 오기 편하도록 사각형 모양으로 가지런하게 모양새를 단장한다. 물론,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나름대로 무게와 크기를 가늠하여 짐을 꾸리게 된다. 어른은 2단의 큰 형태로 짐을 꾸리고, 어린 여자아이는 작은 1단으로 짐을 꾸려 같이 짐으로 돌아온다. 제주여성들의 손 솜씨는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다. 짐으로 꾸린 솔잎단(段)은 사방으로 촘촘하게 정동줄(맹맹이덩굴 줄기)이나 칩줄(취 줄기)로 동여매어 있어서, 짐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많은 양의 솔잎이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자연으로부터 소중하게 얻은 자원을 짐까지 온전하게 운반해 가려는 제주여성들의 지혜에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라면, 솔잎을 굵어모아 짐을 꾸려놓은 후에, 한바탕 재미있게 뛰어 놀거나 또는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산나물이나 야생열매를 따러 가기도 한다. 이를테면, 정한 시간 내에 뜻한 바 일을 모두 마치고 스스로 자축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또래의 여학생들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솔잎을 굵으러 가자는 약속을 하여 야외의 들녘으로 나가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집안 농사일에 휩쓸리기 싫어서, 보다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들녘의 솔잎 채취 쪽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농사일을 돕는 것보다는 빨감을 하러 나가는 편이 훨씬 부모의 눈치를 덜 보게 되고, 또 나름대로 자유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 들녘의 이미지는 또 다시 바뀐다. 그것은 다른 아닌 젊음의 기가 넘쳐흐르는 환희의 공간이다.

제주도의 들녘은 소와 말을 살찌우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중산간에는 드넓은 초지대가 펼쳐져 있어 소와 말의 방목에는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소와 말을 집에다 놓고 기르는 거울과 초봄 사이에는 미리미리 들녘에서 출(풀)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처럼 제주도의 들녘은 소와 말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간이다. 제주도가 소와 말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넓은 방목지와 먹이인 풀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배후에 두고 하는 말이다(사진 19).

그림 4는 1957년 이후 1990년까지 제주도내 소와 말의 사육두수에 대한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내의 소는 1960년대 초·중반과 1970년대 중·후반에 걸쳐 2번의 절정기를 맞으며 사육의 호황기를 맞고 있었고, 말은 1960년대 중반이 사육 호황기를 맞고 있었다. 이와 같이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도에서는 소와 말의 축력(畜力)을 이용한 농업 경제활동이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농경지의 밭을 갈거나 곡식이나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데 소나 말은 중요한 수단이었다. 물론 달구지를 끌 때도 소나 말을 이용했다. 그러나 경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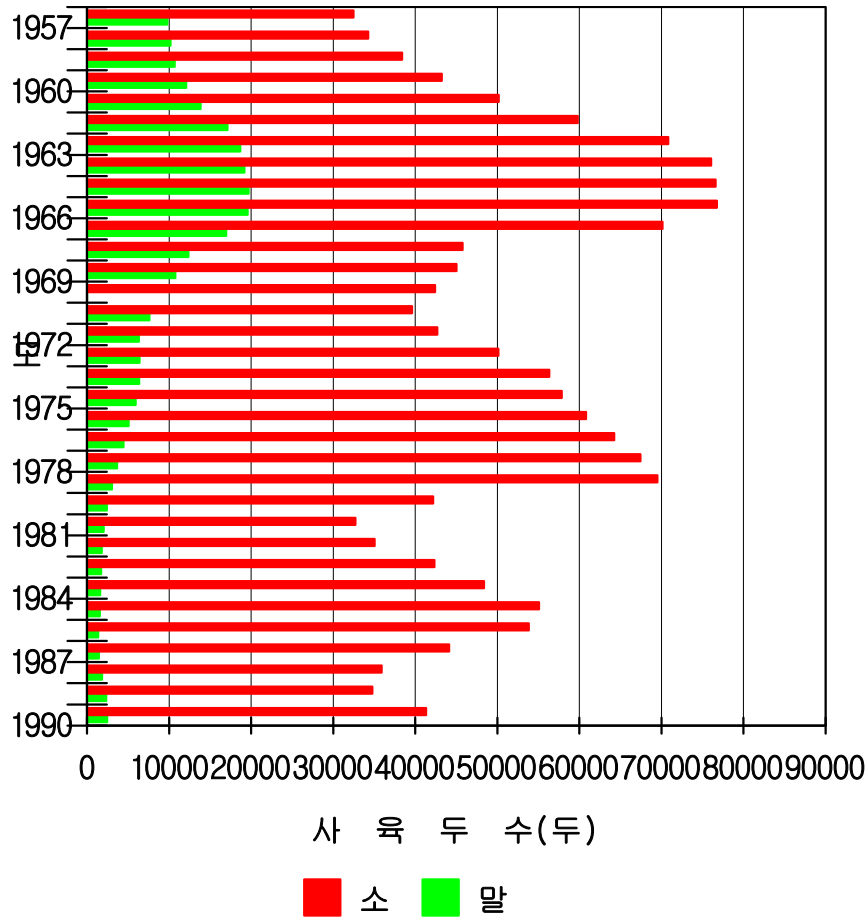


그림 4. 제주도의 소와 말 사육두수의 변화(1957~1990년)
 자료 : 제주도, 2006, 『濟州道誌(第4卷)』, 제주도, 230~232쪽에 의해 필자 작성.

기가 등장하고 이어서 트랙터가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소와 말의 사육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소는 주로 식용(食用)과 더불어 우유생산을 위한 사육형태로, 또 말은 식용과 경마용 등을 생산하기 위한 사육형태로 그 성격이 크게 바뀌었다.

아무튼 1960~70년대의 전성기에는 제주도내 대부분의 농가가 소나 말을 1~2두 정도는 사육할 정도로 중요한 존재였으며, 따라서 집에서 사육하는 소나 말의 출(꼴)을 매년 정기적으로 준비하거나 경우에 따라 2~3일에 1번씩 들녘에서 싱싱한 먹이를 구해 오는 일도 제주여성들은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제주도의 들녘은 제주여성들에게 또 다른 일거리를 안겨다 주지만, 낱이 커져 가는 소와 말의 모습은 막연한 기대를 갖게 하기도 한다.

중산간 들녘이나 오름 자락에는 새(띠, 茅)도 잘 자란다. 띠는 초가의 지붕에 이는 재료로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원이다(사진 20). 물론 띠가 자라는 곳은 '새밭(띠밭)'이라 하여 개인이나 문중에서 소유하는 밭이 대부분으로, 누구든지 아무 곳에서나 새를 베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만큼 새는 중요한 재료였기 때문에, 새밭은 대대로 물려받는 귀한 유산이었다. 중산간 들녘은 기후적으로도 새의 성장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띠가 지붕의 재료로 이

용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시행착오가 뒤따랐겠지만, 최초의 도입은 몽골의 간섭시대에 목마를 위한 방화(放火)로 환상(環狀)의 토지이용이 행해지면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⁰⁾. 그렇다고 한다면, 제주도 전통초가에서의 띠의 사용은 700여 년 이상이나 활용돼 왔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띠는 여성들의 섬세한 손놀림에 의해 베어지고 집까지 운반되어 가족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꾸미는데 사용된다는 점이다. 띠는 잘못 다루면 쉽게 손을 베기도 하고, 지붕의 재료로 이을 때도 느슨하게 동여매거나 하면 바람에 불려 나갈 수 있다. 또한 띠는 지붕을 잘 이은 후에도 화재에는 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바람에 쉽게 흔들리고 꺾이기 쉽지만, 초가지붕의 재료로 없으면 1~2년 동안은 모든 비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는 특별한 기능을 한다. 마치 띠는 제주여성들의 성격이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상징적인 존재와도 같다.

제주도의 전통초가는 대개 2년에 1번씩 새로운 띠로 바꾸어 줘야 한다. 그리고 집 한 채를 띠로 이으려면 상당한 양의 새가 필요하다. 그만큼 제주여성들의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가령, 안거리(內棟)와 밖거리(外棟) 또는 모커리(行廊棟)까지 2~3채를 동시에 새롭게 단장하려면 상당한 양의 띠가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집을 새롭게 이어야 할 해(年)의 늦가을은 제주여성들이 한없이 바빠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이처럼 제주여성들은 정기적으로 지붕을 단장하는 데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존재이다.

제주도의 들녘은 제주여성들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을 안겨주기도 한다. 다름 아닌 계절 따라 생겨나는 다양한 산나물과 야생열매이다. 제주도의 봄, 여름, 가을이 안겨주는 풍요로움을 감수성이 뛰어난 여성들이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산나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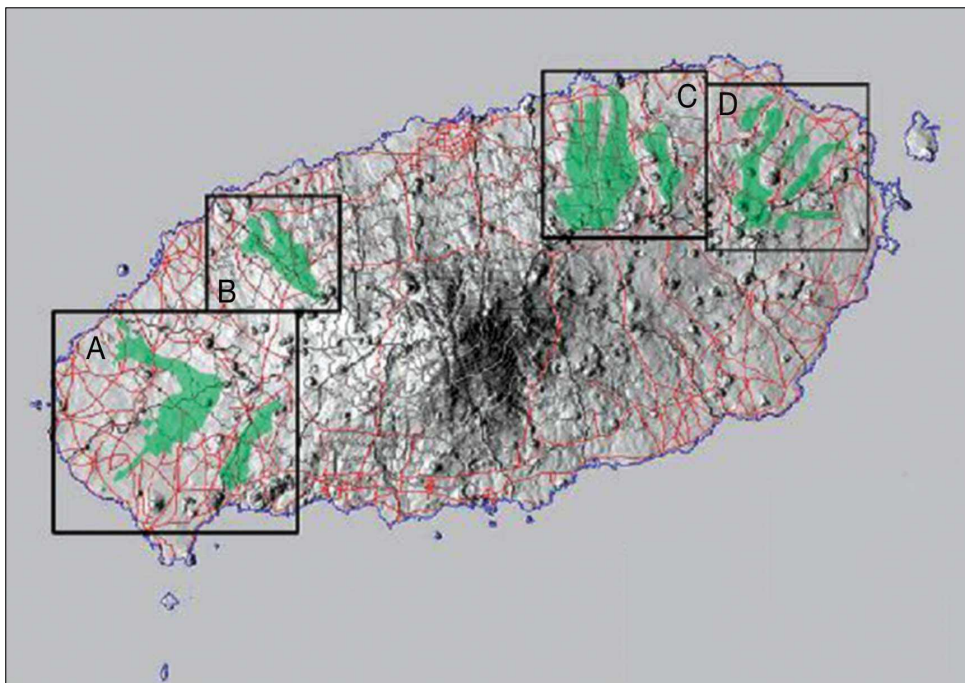


그림 5. 제주도 꽃자왈지대의 분포

자료 : 송시대, 2000, “제주도 암괴상 아아용암류의 분포 및 암질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쪽.

20) 吳洪哲, 1980, 『聚落地理學』, 教學社, 197쪽.

나 야생열매 및 약용식물은 주로 제주도 동서지역에 펼쳐진 꽃자왈지대에 많이 분포한다(그림 5). 제주도에 는 그림 5와 같이 크게 4개로 구별되는 꽃자왈지대가 존재하는데, A는 한경-안덕 꽃자왈지대, B는 애월 꽃자왈지대, C는 조천-함덕 꽃자왈지대 그리고 D는 구좌-성산 꽃자왈지대를 나타낸다²¹⁾. 이 그림에서와 같이, 제주도의 꽃자왈지대는 동서지역의 중산간지역과 일부 해안지역에 걸쳐 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꽃자왈과 제주인의 삶”이란 연구에서 전통적인 생활방식 하에서는 꽃자왈로부터 많은 자연자원을 얻을 수 있음을 밝혔는데²²⁾, 그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꽃자왈 지대에서는 약용식물이나 산나물 혹은 야생열매를 조달하는 경우도 많았다. 비가 온 후, 꽃자왈 지대 내 곳곳에는 일시적으로 물웅덩이를 형성하거나 습기를 머금은 장소가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런 장소에는 식용 고사리, 고비(고배기), 양하(양예) 혹은 달래(뽕마농) 등이 집단적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다. 봄철에 뜯어온 이들 산나물은 가정마다 한가지 정도는 반드시 식탁에 오르곤 했다. 특히, 고사리는 많은 양을 채취했다가 오일시장 등에서 팔거나 집안의 제사 등에 긴요하게 사용하기도 했으며, 양하나 달래는 삶아서 무침류 또는 절임류 반찬으로 만들어 먹는데 유별나게 애용되는 대상이었다. 특히, 고사리 꺾는 일은 요즘에도 봄철만 되면 여성들의 망중환을 보낼 수 있는 소일거리가 되고 있듯이,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봄철 소일거리 중의 하나였다.(55쪽)

꽃자왈 지대에는 영지버섯이나 표고버섯, 쫄, 오갈피, 더덕, 마(麻, 삼마), 쑥, 하늘타리(하늘레기), 인동초(인도꼬장) 등 약용으로 사용되는 식물들도 많다. 이것들은 해안지역의 임야지 등지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것이기는 하나, 꽃자왈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장소는 평소에 채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훨씬 크고 굵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다. 그래서 봄철 중산간 지역의 들녘에서는 산나물과 야생열매를 따는 남녀노소의 즐거운 비명소리가 들려오곤 했다.(55~56쪽)

꽃자왈 지대는 이들 외에도 계절에 따라 짙레순(똥꼬리), 청미래덩굴순(맹계순), 두릅나무순(들굽순) 등 식물의 줄기와 순 그리고 모람, 맥문동 열매(마망구슬), 상동나무의 열매(삼동), 산딸기(탈), 으름(졸갱이), 보리수 열매(불래 또는 보리불래), 오미자, 구기자, 시로미 등 상당히 많은 식물의 열매를 거두어들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56쪽)

이미 연구된 자료에서 야생식물을 이용한 음식의 일부를 열거해 보면 쑥밥(쑥밥), 떡쑥밥(본쑥밥), 조릿대열매밥(ㄱ대밥), 소나무껍질죽(송피죽), 쑥죽(쑥죽), 풀죽(들풀+밀가루), 쑥범벅(쑥범벅), 느티나무범벅(누룩양범벅), 고사리국, 닭의장풀국(고냥귀국), 질경이국(배체기국), 개자리국(개자리풀+된장), 냉이국(난시국), 두릅나무순무침(들굽순무침), 달래김치(뽕마농김치), 개피장아찌(제피지) 등을 들 수 있다²³⁾. 여기에 제시한 음식의 재료들은 거의 대부분 꽃자왈 지대에서 채취할 수 있음은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다.(56~57쪽)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제주도의 들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꽃자왈지대에는 다양한 반찬재료와 약용재료,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간식재료가 산재하고 있어서, 특히 봄과 가을이 되면 항상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비롯한 많은 제주여성들이 저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꽃자왈지대로 향하게 된다.

21) 송시대, 2000, “제주도 암괴상 아이유암류의 분포 및 암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박사학위논문, 18~20쪽.

22) 정광중, 2004, “꽃자왈과 제주인의 삶”, 『濟州教育大學校 論文集』, 第33輯, 41~6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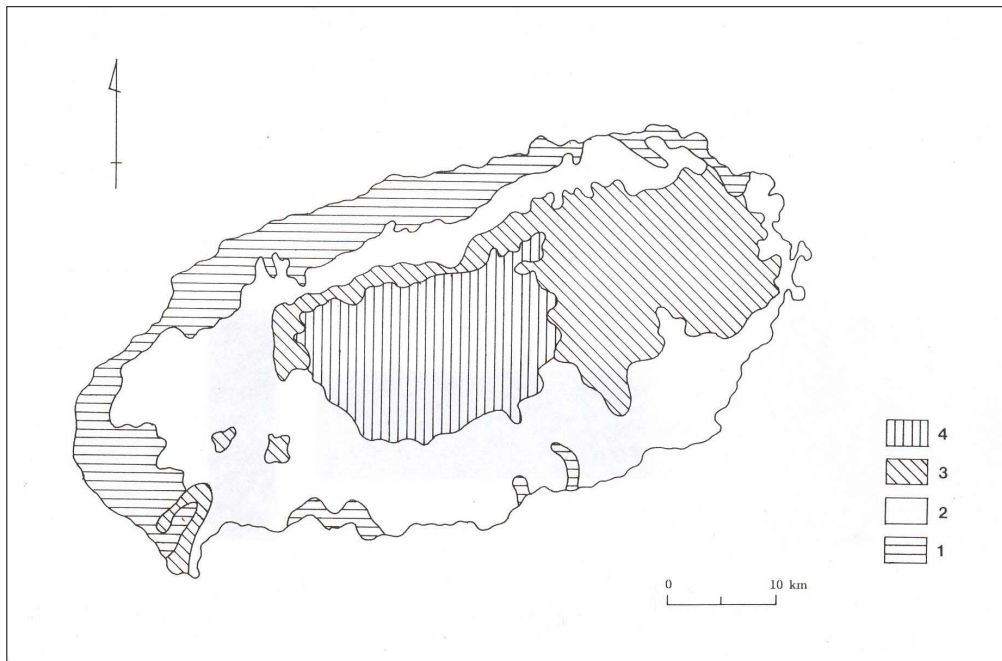
23) 김순이, 1996, 「救荒植物」, 382-428쪽(濟州道, 『濟州의 民俗(IV) 衣生活食生活·住生活』).

2-5. 밭(농경지) : 생계를 위한 실질적 노동공간(1)

제주도민들은 대부분이 밭농사에 의존해 왔다. 과거로부터 산남지역의 중문, 강정, 하효, 서귀, 법환, 서흥(호근동), 월평, 보목과 산북지역의 고산, 용수, 명월, 하귀, 광령, 이호(덕지답), 종달, 시흥 등 극히 일부 마을²⁴⁾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가 밭농사에 의존하는 마을이었다. 이러한 배경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제주도가 화산지형으로 인하여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지형적 조건에 기인한다. 그나마 앞에서 열거한 마을 주변은 점성이 높은 조면암 지역과 함께 하천의 중·하류에서 비교적 용천수가 풍부한 지역의 마을이라 할 수 있다²⁵⁾.

논농사를 하는 마을이든 밭농사를 하는 마을이든, 논과 밭은 가족들을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제주여성들의 노동공간이라는 사실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오늘날 제주도가 감귤산지로 부각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제주여성들은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주로 보리(대맥), 조, 산닥(육도), 콩, 팥, 참깨, 유채, 고구마, 감자 등을 중심으로 한 밭작물 중심의 농업체계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제주여성들은 사시사철 밭농사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고, 밭은 말 그대로 온 가족의 식량을 생산해야만 하는 노동공간이었다.

제주도의 밭을 이루는 토양은 그림 6과 같이 암갈색토, 농암갈색토, 흑색토 및 갈색삼림토의 4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단위면적 당 생산량이 가장 높은 토양은 암갈색토로, 분포지역은 제주시, 조천읍,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등 주로 북부와 서부지역의 해발고도



1. 암갈색토 2. 농암갈색토 3. 흑색토 4. 갈색삼림토

그림 6. 제주도의 토양분포

24) 여기에 등장하는 마을들은 대략 조선시대 말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논농사를 지었던 마을들을 정리한 것이나, 2006년 시점에서는 완전히 폐답되어 논농사를 짓지 않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다(박태훈·고은경·현진미, 1998, “제주도 논농사 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濟大社會科教育』, 第16輯, 77~96쪽.).

25) 高榮基, 1996, “제주도의 벼농사”, 高麗大學校大學院 地理學科 碩士學位論文, 11~12쪽.

자료 : 김태호, 2004, “제2장 제주지방-자연 및 생태환경”, 『한국지리지—전라·제주편—』, 국토지리정보원, 546쪽(원자료 : 농촌진흥원 농업기술연구소, 1976, 『정밀토양도』(제주도)).

200m 이하의 해안지대이다. 그리고 가장 넓은 분포면적을 보이는 농암갈색토는 동부지역을 제외한 중산간지대 전역과 남부지역 대부분의 해안지대에 분포한다²⁶⁾. 흑색토와 갈색삼림토를 포함하는 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비료가 생산되어 보급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밭작물을 생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암갈색토와 농암갈색토를 포함하는 밭에서는, 앞에서 열거한 밭작물들을 비교적 무난하게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안지역과 중산간 지역에서도 밭의 위치에 따라서 생산량의 차이는 다양하게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제주도의 밭은 기본적으로 화산회토(火山灰土)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육지부의 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비옥도가 떨어짐은 물론이고 농업 생산량도 낮은 게 사실이다(사진 21).

결국, 제주여성들은 조금이라도 밭작물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검질매기(검매기)나 거름 나르기 작업 등을 밥먹듯이 하였다. 표 5에 제시한 제주시 영평마을 일대의 사례에서 보듯이, 제주도는 기후적으로 고온 다습하여 육지부보다도 훨씬 잡초가 잘 자라는 풍토이며 종류도 또한 많은 편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농업환경을 송성대 교수는 ‘제주도의 농사는 잡초와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검질매기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따라서 제주여성들은 가사를 위해 집안에 있는 시간보다 생산현장인 밭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²⁷⁾. 이처럼, 검질매기 작업만큼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로 여성들의 몫이었다(사진 22). 특히 봄에서 겨울까지 계속 이어지는 보리밭, 조밭, 콩밭, 참깨밭, 유채밭의 검질매기는 제주여성들의 술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화제의 현장이기도 하다. 제주여성들이 주고받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는 대개 집안이야기나 동네사람들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식들의 고등학교·대학교 진학관련 소식이나 시부모와 친부모의 근황, 가족들의 병치레 소식, 그리고 마을 내 어느 집의 결혼소식이나 대소상 관련소식 등은 항상 도마에 오르내리는 단골메뉴였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한탄과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하며 힘든 노동을 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또한 스스로를 달래려고 열심히 노래도 불렀다. 그래야만 제주여성들은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恨)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검질매기 작업은 동네의 여러 가구가 어울려서 수눌음으로 해결하기도 하였다. 한 집안에서 경작하는 밭을 혼자서 또는 딸들을 동반하여 모녀시간이 전부 마치기에는 벅차기 때문이었다. 봄에는 보리밭과 유채밭, 여름에는 조밭, 콩밭 및 참깨밭 등 수확기인 7~10월까지의 검질매기가 끝없이 이어지며, 1년 중 1/3 정도의 기간은 검질매기로 일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검질매기는 작물마다 1년에 1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가 한 번 내리고 나면 검질(잡초)들이 무서운 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는 3회, 콩·참깨·유채는 2회, 보리는 1~2회 정도 검질매기를 해야만 한다²⁸⁾.

제주도의 밭은 전체적으로 자갈 함유량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밭을 경운 하거나 검질매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설새없이 자갈을 골라내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심지어 돌이 많은 밭은 ‘작지왓(멸왓)’ 또는 ‘장멜왓(장멸왓)’이라고 하여 밭의 등급을 정하는 하나의

26) 김태호, 2004, “제2장 제주지방-자연 및 생태환경”(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리지—전라·제주편—』, 국토지리정보원), 539~561쪽.

27) 송성대, 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제주인의 海民情神(개정증보판)—』, 도서출판 각, 417~418쪽.

28) 애월읍 신엄리 출신 성봉추(여, 73세)씨와의 인터뷰 내용에 의함.

기준으로 삼을 정도였다²⁹⁾. 이런 상황이고 보면, 여성들의 일거리는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표 5. 제주도의 밭에 자생하는 잡초(풀)의 종류 : 제주시 영평마을 일대의 사례

월 별 (음) 종 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완지												
속												
쉐비늬												
쉐터럭												
천상클												
보 클												
고낭귀												
츄비늬												
물 클												
맹 클												
빈 내												
빈다리												
ㄱ라지												
진 풀												
절만이												
쉐스렁클												
사스라클												
대오리												

자료 : 濟州道, 1994, 『濟州의 民俗 II(生業技術·工藝技術)—濟州文化資料叢書 [2]—』, 濟州道, 47쪽.

어떻든 자갈이 많은 결과로서, 제주도 내에 밭들이 자리잡고 있는 곳에는 크고 작은 자갈을 쌓아 만든 잣담이 존재한다. 이러한 잣담은 우천 시에 통행을 할 수 있는 길 역할을 하기도 한다(사진 23).

제주도의 밭농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거름을 확보했다가 밭에다 뿌리는 것이다. 이러한 거름은 보통 여름농사가 끝나고 겨울 보리농사를 짓기 전인 늦가을에 밭으로 옮기는데, 이 때도 제주여성들의 힘은 위대하다고 할 정도로 되살아난다. 거름은 대개 통시에서 생산된 돛걸름(돼지 거름)이나 쇠막에서 생산된 쇠걸름(소거름)인데, 그 어느 쪽이 됐건 간에 밭으로 운반하는데 필요한 '걸름착(거름착)³⁰⁾ 1개의 무게는 대단하다. 걸름착 1개의 무게는 적어도 30~40kg을 웃도는 것이 예사이다. 이 정도의 무게를 계속 느끼면서 포장되지 않은 길을 30~60분 정도 걸어야 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물론, 거름 운반하기는 여성들만의 몫은 아니다. 한 줌의 거름도 필요했던 당시에는 모든 가정이 집안 내 어른들은 물론이고 등짐을 질 수 있는 나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밭으로 운반된 거름은 여기저기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임시적으로 쌓아놓는다. 특히 돛거름은 주로 보리를 파종할 때 밑거름으로 쓰였는데, 제주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보리씨를 거름과 혼합하여 뿌리는 등 그 쓰임새는 다르게 사용하기도 했다³¹⁾. 돛거름은 주로 늦가을인 10월중·하

29) 작지나 장멜은 작은 돌을 의미하는 제주 지방어이다(南錫珍, 1987, “濟州島 傳統社會의 農業經營에 關한 研究—涯月邑을 中心으로—”,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9쪽.).

30) 거름을 담아서 옮길 때 사용하는 도구의 일종으로 짚을 엮어서 만들며, 형태는 '맥(떡서리)'과 유사하다.

순경까지 길가의 돌담에 의지하여 쌓아놓았다가 초겨울인 12월초·중순경에 밭으로 운반하여 뿌려진다. 거름을 뿌리는 작업도 주로 여성들의 손을 거치게 된다. 즉 밭을 경운 하는 작업이 남성들의 몫이라면, 거름과 보리씨를 뿌리는 작업은 주로 여성들의 몫이었다. 여성들은 적당한 간격으로 쌓아둔 거름을 이랑과 고랑을 따라가며 뿌린 후에 보리씨를 산파(散播)한다. 특히 거름을 뿌리는 작업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밭 하나가 평균적인 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골고루 뿌리는 요령이 필요하다(사진 24).

여름과 가을이 되면 보리, 콩, 팥, 유채 등 수확을 위한 베기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농작물에 따라 수확시기는 조금씩 다르나, 대략 6~8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베어내야만 한다. 보리나 조, 콩 및 유채 베기 등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가족단위로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성들의 수눌음으로 돌아가며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수눌음의 기본은 작업량이 많아서 가족들만으로는 힘이 부치거나 혹은 농작물의 생육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 안에 적절한 작업을 행해야만 하는 농가의 의도가 배경에 깔려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힘겨운 작업을 같이 하면서 노동의 고통을 잊고 같이 즐거워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농작물을 베어내는 작업에서는 서투르게 낫을 사용하다간 손가락을 베기까지 한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 내에 목표로 삼은 만큼의 작업량을 끝마치려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함은 물론, 나름대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장단에 맞추듯이 작업을 진행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제주여성들은 그러한 요령을 잘 터득하고 있다. 한 동네에 사는 여성들이 수눌음을 통해 서로 작업을 하고자 하는 배경 속에는, 노동의 즐거움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나름대로 계산된 지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밭농사의 시작은 대개 씨앗을 뿌리거나 혹은 씨감자 등을 심는데서 비롯된다. 그런데 특히 씨앗을 뿌리는 농사 중에서도 보리와 조농사는 씨를 뿌린 후에 씨앗이 바람에 불리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주는 작업이 필요했다. 제주도의 토양은 대부분이 화산회토여서 찰기가 없는 데다가 토양 입자도 매우 가볍다. 게다가 제주도는 사계절 내내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기 때문에, 밭에 뿌린 씨앗이 쉽게 날려가 버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다시 말하면, 진압농법(鎮壓農法)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보리씨나 조씨를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통 가족들을 동원하여 밭로 밟거나 말을 동원하여 이리저리 잘 밟도록 이리저리 몰고 다녔다. 즉 ‘밭벌림’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남녀 어린 학생들은 물론이고, 갓 태어난 멧생이(망아지)까지 동원하곤 했다(사진 25).

그러나 또 한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썩비(피)질이었다. 썩비질은 썩비라고 하는 농기구로 고랑을 따라가며 씨앗을 이랑 쪽으로 쓸어 내려 매우거나 파종한 씨앗을 흙으로 덮는 것을 말한다³¹⁾. 그리고 썩비는 나뭇가지와 돌덩어리로 만든 농기구로서 주로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농기구 중 하나였다. 제주여성들은 썩비의 나뭇가지 끝에 매단 줄을 한쪽 어깨나 양쪽 어깨에 맨 상태로 앞으로 끌었다. 물론 썩비질의 효과도 높았음은 말할 것도 없다. 제주여성들이 한해 농사에 대한 풍년을 소망하는 만큼, 썩비질의 강도도 높게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밭에서 베어낸 농작물은 집으로 운반하지 않고 일정기간을 두었다가 밭에서 최종적인 수확작업을 하기도 한다. 가령 탈곡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곡류인 보리, 조, 산의(육도)나 두류인 콩, 팥, 메밀(蕎麥) 등은 표 6과 같이 다양한 탈곡방법으로 수확이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보편적으로 밭에서도 수확이 이루어지는 농작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집안의 노동력 조달형편이나 이웃 간의 수눌음 약속 등에 따라서는 집안 내의 마당 혹은 집 가까운 길가에 운반했다가 수확하는 경우도

31) 고광민, 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81쪽.

32) 김동섭, 2004, 앞 책, 110쪽.

많다. 밭에서는 도리깨로 내려치거나 보리클 혹은 산디클로 이삭을 따낸 후에, 다시 도리깨나 마
 께(나무방망이) 등을 사용하여 수확하였다.

수확과정에서도 여성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탈곡할 농작물을 사전에 준비하여 정리하는

표 6. 주요 곡류와 두류의 탈곡방법

농작물명	타 작 방 법
보리 (大麥)	○ 보릿단을 도리깨로 때려 알곡을 골라내는 방법
	○ 보리클로 이삭을 따내어
	① 도리깨로 때리는 방법
	② 소나 말로 밟는 방법
조(粟)	○ 이삭을 낫으로 따내어
	① 밧로 부비는 방법
	② 마개로 때리는 방법
	③ 도리깨로 때리는 방법
산디(陸稻)	○ 이삭을 낫으로 따내거나 산디(육도)클로 따내어
	① 도리깨로 때리는 방법
	② 채 위에 놓아 손으로 밀어내는 방법
	③ 연자마를 이용하는 방법
콩(大豆), 팥(小豆), 메밀(蕎麥)	○ 도리깨로 때리는 방법

자료 : 南碩珍, 1987, “濟州島 傳統社會의 農業經營에 關한 研究”—涯月邑을 中心으로—,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32쪽.

것은 물론이고, 탈곡과정에서 농작물이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일, 농작물이 옆으로 튕겨
 나간 것을 주어 담는 일, 다른 일손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일 등 농가 여주인으로서 해야할 일
 들은 산더미처럼 많았다. 수확작업 완전히 끝난 후에도 탈곡한 농작물을 운반하는 일 그리고 탈
 곡 후에 남은 보릿짚, 조짚 또는 두류의 지푸라기(콩깍지, 콩대[줄기] 등) 등을 잘 묶어서 집으로
 운반하거나 밭에서 불태우는 작업 등을 해야 했는데, 이러한 작업도 대부분은 집안 내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사진 26).

2-6. 바다 : 생계를 위한 실질적 노동공간(2)

바다는 제주여성들 중에서도 해녀들의 중요한 노동공간이 돼 왔다. 다시 말해, 바다는 제주해
 녀들이 가족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하는 일터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해안마을의 여성인 경우에는 평소 육지의 밭과 더불어 바다의 밭을 일구어왔으며, 거기서 캐내는
 해산물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아주 중요한 수입원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바다는 제주여성들의
 노동공간이기도 하지만 하루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심신휴양의 장이기도 했다. 즉 집안의
 어려움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거리가 있을 때는, 모든 일을 잠시 접어두고 바다로 나가 잠수

일에 열중하기도 했다. 제주여성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일터에 그치지 않고, 삶의 공간의 일부였던 것이다(사진 27).

제주해녀와 같이 직업적으로 잠수일을 하는 여성들은 전 세계적으로 돌아볼 때, 대한민국의 제주도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³³⁾. 그만큼 가족들을 위해 바다 속으로 몸을 던져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여성들의 존재는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했다는 사실이다(사진 28). 역사적으로 볼 때도 제주해녀들의 존재는 상당한 시간을 초월하여 거슬러 올라간다. 박찬식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때 제주여성들은 주로 미역 등을 따는 진상역(進上役)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전복을 따서 진상하는 부역 담당은 남성들인 포작인(鮑作人, 浦作人, 鮑作干)³⁴⁾의 몫이었다. 그러나 포작인의 전복 부역이 너무나도 지나친 결과 많은 포작인들이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으로 도망쳐 버린 관계로, 제주섬에 남아 있는 여성들이 그 몫을 대신 떠 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 시기는 대략 17C 후반 이후에 본격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⁵⁾. 따라서 오늘날 제주여성하면 ‘강인하고 부지런한 여성’이라는 이미지는 애당초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는 연구자도 있다³⁶⁾. 이러한 점은 역사적 관점에서 해녀를 분석한 박찬식의 연구를 참고할 때, 분명히 잘못된 시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비록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제주의 여성(해녀)상이 잘못 왜곡된 부분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조선시대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척박하고 혹독한 섬 환경 속에서 가족들을 위한 제주여성들의 삶은 현실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도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다. 그 이면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전파되어 오랫동안 지속돼온 유교사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남성들의 ‘게으름’이 일조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바다는 가족들을 살찌울 수 있는 또 하나의 터전이면서 동시에 잠수일 자체는 제주 섬에서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직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³⁷⁾. 아울러 잠수일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의 한 영역이라 강조할 수 있다면, 이점은 해안마을에 거주하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역으로 말하자면, 중산간 마을의 여성들인 경우에는 잠수일을 통한 금전적·물질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부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산간 마을의 여성들에게는 바다와의 거리에 따른 지리적 위치의 불리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화제를 바꾸어, 제주여성들인 해녀들이 바다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녀들의 채취 해산물은 소라, 전복, 오분작, 성게, 해삼, 미역, 우뭇가사리, 톳, 감태 정도로 약 10여종이다(사진 29). 그러나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의 지적에 따르면, 제주도의 마을어장에서 해녀들이 채취할 수 있는 해산물은 표 7에 제시한 것과 같이 22종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패류가 소라, 전복 등으로 5종, 해조류가 톳, 미역, 우뭇가사리 등으로 13종, 어류가 1종, 기타가 3종으로 확인된다. 단지 이

33) 제주도, 1994, 앞 책, 190쪽.

34) 조선시대 때 낮은 계층의 신분으로, 주로 어업에 종사하거나 해산물 등을 채취하며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해산물 등을 중앙조정에 진상하는 역을 담당하던 남성을 말한다.

35) 박찬식, 2006,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좌혜경 외,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107~136쪽.

36) 권귀숙, 1996, “제주해녀의 신화와 실체: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0집 봄호, 227~258쪽.

37) 박정희, 2004, “제주도 여성문화에 관한 고찰—가족과 결혼생활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쪽.

들 해산물은 시대에 따라 또는 시기에 따라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 내의 마을어장이라고 해도, 모든 마을어장에서 22종의 해산물을 전부 채취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러 마을어장은 수온과 해저환경이 조금씩

표 7. 제주도 마을어장에서 채취할 수 있는 해산물

패 류	해 조 류		어 류	기 타
① 소라	① 톳	⑧ 꼬시래기	① 문어	① 성게 ② 해삼 ③ 갯지렁이
② 전복	② 미역	⑨ 성복		
③ 오분작	③ 우뭇가사리	⑩ 돌김		
④ 보말	④ 감태	⑪ 들복		
⑤ 고등	⑤ 파래	⑫ 모자반		
	⑥ 청각	⑬ 갈래곰보		
	⑦ 도박			

자료 : 김수완, 2006, “잠수 소득 증대 방안”, 『제주해녀 삶의 질 향상과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세미나 자료집』, 62쪽에 의해 필자 정리.

다르기 때문에, 각 마을어장마다 몇몇 해산물은 서식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표 7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추자도 연안에는 홍합이 서식하고 있으며 추자도 해녀들은 홍합도 중요한 해산물로 채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홍합의 서식여부도 수온을 비롯한 해저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지적할 수 있다.

표 7에 제시된 다양한 해산물 중에서도 과거로부터 해녀들에게 주된 수입원으로 자리잡아 왔던 해산물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다시 말하면, 많은 해녀들이 저승길과 같은 험난한 바다 속 잠수일을 통해 필요한 현금을 얻어낼 수 있는 해산물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수가 매우 한정적이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시기적으로 해녀들의 주 수입원을 구분해 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주로 미역, 전복 및 소라에 의존하던 것이 1980년대 이후부터는 톳과 천초(우뭇가사리), 소라에 의존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³⁸⁾. 특히 2004년 이후부터는 우뭇가사리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이에 대한 채취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과거에 많이 채취하던 전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그 수량이 감소한 결과, 최근에 와서는 수입원의 중심선(中心線)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말았다.

해녀들의 잠수일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1일 단위나 또는 계절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행해지는지를 살펴보자. 보통 해녀들의 하루일과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집안일에서부터 시작된다. 표 8은 해녀들의 계절에 따른 하루일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1992~1993년경의 우도 사례이다. 이 사례가 제주도 내 모든 해안마을 해녀들의 일과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 해안마을의 사례로 해녀들의 일과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으며 또 해안마을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노동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8에서 보듯이, 우도의 해녀들은 항시 새벽 5~6시쯤이면 일어나서 집안일을 시작하며 1년 중 4~9월까지 6개월 동안은 1일 약 6시간 동안을 잠수일을 하곤 했다. 그리고 1~3월과 10~12월 동안은 집안일과 잠수일 및 농사일을 번갈아 가며 행하게 되는데, 이 시기의 잠수일은 약 3시간 정도로 줄어든다. 그리고 농번기인 5~6월(보리 베기)과 10~11월(고구마 수확기) 동안은 잠수

38) 이종만, 2006, “제주 해녀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제주해녀 삶의 질 향상과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세미나 자료집』, 21쪽.

일은 하지 않고, 주로 농사일과 집안일을 중심으로 행하며 잠수일을 많이 하는 시기와는 달리 3끼의 식사도 비교적 일정한 시간에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³⁹⁾.

표 8에서 거듭 확인해 보면, 해녀들은 봄과 여름에는 하루일과 중 잠수일이 주(主)가 되는 생활이 되고 있으며, 가을과 겨울에는 주로 집안일과 농사일이 주가 되는 생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년을 단위로 검토해 볼 때, 해녀들은 기본적으로 집안일과 농사일과 잠수일이라는 3고역을 동시에 떠안은 환경 속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해녀들에게 물으면, 세 가지 일 중

표 8. 계절에 따른 해녀들의 1일 노동 시간표(우도 사례 : 1992~1993년)

시 간	4~9월	1~3월, 10~12월	농번기 (5~6월, 10~11월)
0	취 칩	취 칩	취 칩
1			
2			
3			
4			
5	가사일 / 아 칩	가사일 / 아침	가사일 / 아 칩
6			
7			
8	물 질	가사일 / 아침	농사일
9			
10		농사일	
11		물 질	
12		농사일 / 점심	
13		점 심	
14		물 질	
15	점 심	농사일 / 휴 식	농사일 (해질 때까지)
16	해산물 분류작업		
17			
18	가사일 / 저 녁	가사일 / 저 녁	
19	가사일 / 저 녁		
20			
21	취 칩	휴 식 / 취 칩	취 칩
22			
23			
24			

자료 : 유철인, 2001, “제주해녀의 삶 : 역사인류학적 과제”,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105~106쪽.

39) 金恩希, 1993, “濟州潛嫂의 生活史—事例研究를 中心으로—”,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49쪽.

(원자료 : 金恩希, 1993, “濟州潛嫂의 生活史”一事例研究를 中心으로一,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48쪽.).

에서도 가장 힘겨운 일은 저승길을 오가는 잠수일이라고 지체 없이 얘기한다⁴⁰).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일보다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잠수일을 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는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잠수일이지만 계속해서 한다는 해녀들도 많다⁴¹). 비단 해녀들은 여기에 나열한 일에만 한정돼 있는 것도 아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집안 내 아이들 뒷바라지와 시부모의 공양, 더 나아가 마을의 대소사(大小事)도 마다하지 않고 서로 돌보는⁴²), 1인 4억 내지는 5억의 존재로서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생활전사(生活戰士)와도 같았다. 그러다 보니, 제주해녀들은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1960~70년대 초반까지는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외국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및 함경도까지도 출가(出稼) 잠수일(출가물질)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⁴³).

해녀들이 잠수일하러 바다로 향할 때에는 마을내의 동료해녀들과 삼삼오오 짝을 지어 같이 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습관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관습이자 풍습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관습을 유지하는 것은 잠수일 도중에 혹시라도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서로 도울 수 있는 신뢰를 쌓아 가는 과정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다. 해녀들이 바다로 향할 때는 잠수도구인 태와과, 빗창, 눈(물안경), 소살(작살)과 함께 중간 휴식 때 불을 지피는데 사용할 약간의 뿔감을 가지고 간다. 뿔감은 불턱(해녀탈의장) 안에서 추운 몸을 녹이는데 사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였다(사진 30).

바닷가에 도착하면, 우선 불턱에서 옷을 갈아입고 잠수준비에 들어간다. 물웃은 1970년대 이전에는 무명으로 만든 물소중이었지만, 그 이후는 고무옷으로 바뀌어서 갈아입는 데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 잠수복장으로 갈아입고 나서는 태와과와 빗창 등 잠수도구를 챙기고 물가로 향하는데, 물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쪽으로 물안경 안쪽을 닦아내는 일을 한다. 그 이유는 잠수일 중에 물안경 안쪽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물 속에서의 작업은 삼삼오오 짝을 지은 형태로 하게 되는데, 자신의 실력에 따라 작업공간인 물 속 깊이도 달라진다. 즉 상군(上軍)은 상군 대로, 중군(中軍)은 중군 대로 그리고 하군(下軍)은 하군 대로 실력에 맞춰 작업공간의 범위나 물 속 깊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에서 잠수일을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혼자서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것은 잠수일을 하는 도중에 상어나 곶새기(돌고래)의 출현으로 신체의 일부에 큰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고, 또 깊은 물속에서 지속되는 작업으로 인해 갑자기 호흡곤란을 초래하여 개개인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수일을 하면서도 간혹 주변 동료의 위치를 확인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는 동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지를 파악하게 된다. 잠수를 시작하여 1~2시간 정도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최초의 작업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다시 말해 바다에서의 자신의 위치파악은 항상 필요한 것이며, 더불어 자신의 주변에 동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신경 써서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

40) 金榮敏, 1993, 『제주민의 삶과 문화』, 도서출판 제주문화, 126쪽.

41) 安美貞, 1997, “제주해녀의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濟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50쪽.

42) 한림화, 2006, “해양문명사 속의 제주해녀”(좌혜경 외,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1~105쪽.

43) 좌혜경, 2006, “제주 출가 해녀의 현지적응”(좌혜경 외,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9~244쪽.

한 일 중 하나이다. 이처럼 해녀들은 자신을 위하여 또는 동료들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잠수일에 임한다.

하루의 잠수시간은 해안마을(어촌계 단위)마다 다른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작업복이 고무옷이 아닌 물소중이었던 시기(1960년대까지)에는 물 속에서의 작업시간이 1회당 1~1.5시간 정도였지만, 고무옷으로 바뀐 이후에는 작업시간도 3~4배 이상이나 늘어났다. 따라서 표 8의 1~3월이나 10~12월과 같이, 잠수일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하기도 하지만, 4~9월의 사례와 같이 한 번 바다로 나가면, 중간에 1~2회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하루에 2~3회 정도 잠수일을 한 다음 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잠수일을 하다 중간 휴식시간에는 어린 젓먹이에게 젓을 먹이는 일도 다반사였다⁴⁴⁾. 잠수일 자체가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휴식시간을 이용하러 어린 자녀에게 젓을 몰려 자식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을 생각하면, 제주여성들이 부지런하고 강인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처럼 제주해녀를 비롯한 제주여성들이 행하는 일(작업)의 내용과 양을 좀더 입체적으로 접근해서 살펴보면, 일부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제주해녀들의 부지런함과 강인함이 반드시 유교 중심적 사고에서, 또는 남성 우월적 사고에서 평가되어 신화화(神話化) 됐다는 지적이 옳다고 만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오늘날 제주해녀들은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 이 글을 작성하는 기본시점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지는 듯한 감이 없지 않으나, 제주해녀의 감소추세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언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해녀의 수에 대한 통계가 보이는 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선 1913년의 제주해녀는 약 8,39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며, 1931년에는 8,862명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듯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⁴⁵⁾. 1965년경에 이르면 23,081명으로 급증하여 많은 해안마을의 제주여성들의 잠수일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1970년에는 그림 7에서 보듯이, 14,143명으로 1965년에 비해 8,938명이나 감소한 상황을 보이며, 1980년에는 한층 더 감소하여 7,804명에 이르고 있다. 더 나아가 1995년에는 5,886명, 2005년에는 5,545명으로 감소율은 이전에 비해 많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실수(實數)의 감소추세는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제주해녀의 감소문제는 향후 전통어업의 유지 혹은 전통어법의 소멸문제와도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처럼 제주해녀의 감소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사회의 전체적인 경제성장은 농어촌 인구가 도시나 도시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3D 업종은 단연코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을 낳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1960년대 말부터 본격화한 대대적인 감귤단지의 조성을 필두로, 1970년대 초부터의 관광개발에 중점을 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보다 활발해진 농가의 다양한 상품작물의 도입 등은 오랫동안 힘든 잠수일을 해온 해녀들의 삶을 바꾸어 농가에 충분했다⁴⁶⁾.

유철인의 지적과 같이, 시기별 해녀수의 감소배경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⁴⁷⁾, 제주해녀들의 감소문제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각계각층의 의

44) 이러한 사실은 도내의 여러 사진작가들이 제주해녀나 제주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작품집에서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재철·김영돈(1990)의 『濟州海女』(봄데강)를 참고할 수 있다.

45) ① 유철인, 2001, “제주해녀의 삶 : 역사인류학적 과제”(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101쪽. ② 梶田一二, 1976, “濟州島海女”(梶田一二地理學論文集刊行會, 『梶田一二地理學論文集』, 弘詢社), 67~85쪽.

46) ① 元學喜, 1988, “濟州島における海女漁業の變貌と生産形態”(立正大學日韓合同韓國濟州島學術調查團, 『韓國濟州島の地域研究—學術調査報告書—』), 102~118쪽. ② 安美貞, 1997, 앞 논문, 8쪽.

건을 수렴하여, 하루빨리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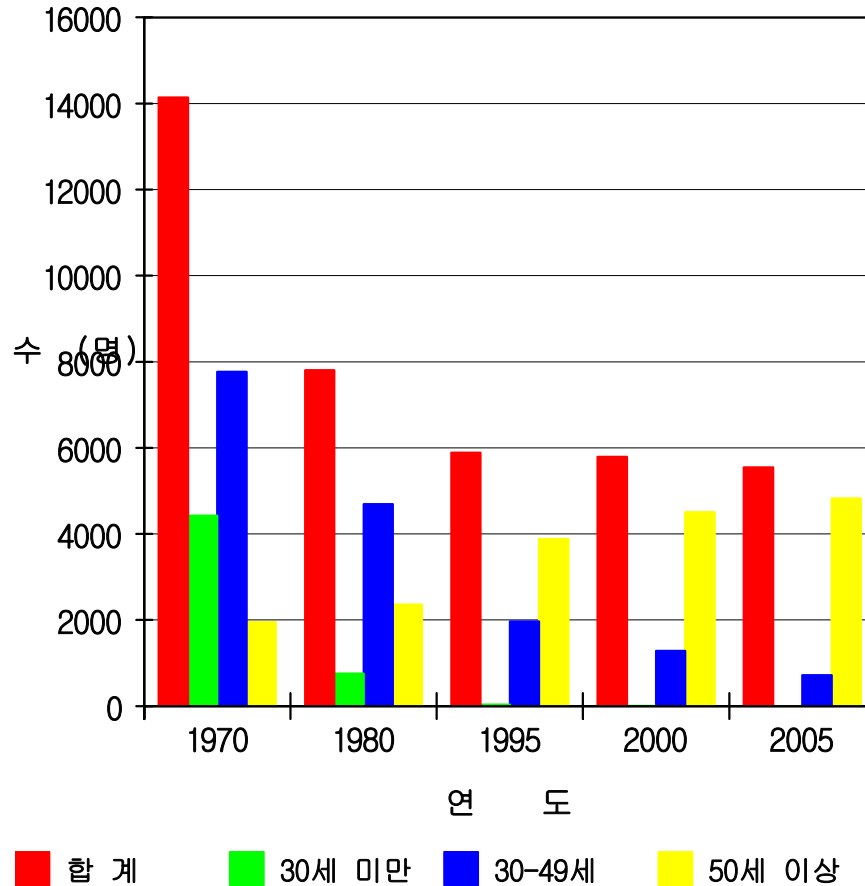


그림 7. 제주해녀의 연도별·연령별 변화(1970~2005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06, 『2006년도 해양수산현황』, 제주특별자치도, 37쪽.

바다는 제주여성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또 하나의 노동공간이면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대변하는 의미 있는 상징체이다. 이와 같은 바다가 최근 엄청난 오염에 휩싸여 해녀들의 작업공간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 문제 또한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다. 제주도의 바다에서 해녀들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제주도 역사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해녀의 관계는 실과 바늘 같은 관계라 단정지을 수 있다.

Ⅲ. 濟州女性들에게 있어 眞正한 勞動의 意味와 勞動空間의 特性

47) 유철인, 2001, 앞 논문, 103쪽.

전통사회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던 1970년대까지를 배경으로 할 때, 제주여성들에게 있어 노동(일)은 하루일과의 모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제주여성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크고 작은 집안일에서부터 밭일(농사일)과 잠수일, 육아와 시부모 봉양, 마을내의 여러 가지 일 등 제주여성들의 노동은 하루일과의 대부분의 시간에 걸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인간이란 동물은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몸을 제대로 유지하여 온전한 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제주여성들이 취침시간 외에 전혀 휴식을 취하지도 않은 채 하루종일 일에만 열중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평가라 해야 할 것이다.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제주여성들의 강인함과 부지런함을 강조할 때는 조선시대 때의 '여정(女丁)'을 등장시키기도 한다. 여정은 조선시대 때 도내의 읍성(邑城)을 지키던 여성군인을 말하는데, 이처럼 남성들만 담당하던 군역(軍役)까지 제주여성들은 담당하던 때가 있었던 것이다⁴⁸⁾. 이와 같이 특수한 시대적인 상황은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과 관련하여 남녀의 인구구성에 더 큰 문제가 있었음을 예상하게 한다. 만약에 남성인구가 많았다면, 여정이라고 하는 여군집단이 과연 탄생했을까 하는 소박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전통사회가 제대로 유지되던 시기에 제주도와 같은 섬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할 일들이 많았다는 사실이며, 더불어 남성들은 하루일과 중에 생기는 많은 일거리가 거의 무조건 여성들의 몫으로 치부해 왔다는 것이다. 나아가 또 한편으로는 제주여성들이 보편적으로 노동에 대한 적극성이랄까, 일에 대한 열정 또는 욕심을 보였다든 점도 분명히 내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부모로부터의 교육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놓여진 환경에 의한 자발성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제주여성들이 일에 대한 열정이나 욕심은 부렸던 배경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분명하다. 일 뒤에는 바로 '가족'이라는 떠날 수 없는 소중한 '울타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여성들은 시부모와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모든 일을 헌신적으로 소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제주인의 정신세계와 정신문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한 송성대 교수는 제주여성들의 일에 대한 근면함을 강조하면서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⁴⁹⁾.

한반도의 여성들도, 제주도의 여성과는 비길 바가 못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매우 근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제시대 때, 한국 주부의 작업량을 조사하여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을 보면 한국 여자들은 독일여자보다는 3.2배, 프랑스여자보다는 4.5배, 일본여자보다는 1.5배나 더 큰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제주 주부들의 작업량을 만약 한국 주부들과 비교했을 때는 아마 수배의 차를 보였을 것이었지만, 제주의 주부들은 그런 가사를 모두하고 더하여 집 밖으로 나가서 농사일은 물론 물질(잠수작업)까지 한 몫이 있기 때문이다.(450쪽)

이상의 분석에서도 제주여성들의 일에 대한 열정이나 근면함은 그대로 재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송성대 교수 자신도 필자와 같이 제주도 출신이라는 점에서 다소 편파적인, 그리고 조금은 과장된 분석일 수 있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제주여성들은 주어진 많은 일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받아들이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어쩌면 현실을 헤쳐나가는데 급급했을지도 모른다고 해야 옳을 수도 있다. 매일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일은

48) 金尙憲, 1601~1602, 『南槎錄』(朴用厚 譯, 1976,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54쪽.

49) 송성대, 2001, 앞 책, 450쪽.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제주여성들은 뇌리 속에 항상 가족을 떠올리며 현실세계를 헤쳐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주여성들이 활동해온 노동공간의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하자. 제주여성들의 노동공간은 집 밖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집 밖의 노동공간도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6개(길가[마을길], 빨래터, 장터, 들녘[들판], 밭[농경지], 바다) 영역의 공간적 범위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니다. 이 글에서는 전통사회에서 제주여성들이 가장 많은 노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노동공간을 나름대로 거주지를 중심으로 상대적인 거리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고는 하나, 집 밖의 노동공간은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제주여성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노동과정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노동공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제주여성들의 노동공간은 비교적 자연환경의 속성을 잘 이용한 틀 속에서 설정된 노동공간이라는 점이다. 제주도 들판이 그러하고, 바다가 그러하다. 마을길과 밭, 빨래터나 장터라는 노동공간도 심하게 인위적으로 조작되거나 많은 인공물을 설치하여 주변과 조화롭지 못한 듯한 변형된 이미지는 느끼지 못한다.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환경만을 수정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일하는데 편리성을 추구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다양한 노동공간을 인공적이거나 인위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자연에서 얻어지는 산물(돌, 나무 등)을 토대로 활용해 온 점이 또한 주목된다. 제주여성들을 포함한 제주선민들의 지혜가 돋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심지어는 노동공간에서 사용하는 농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생산도구도 자연에서 얻은 것을 주로 사용해 왔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제주여성들은 자연 친화적인 노동공간 속에서 자연 생태적인 의식을 토대로 노동을 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노동공간이 자연 친화적이거나 자연환경의 속성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제주도가 섬 지역으로서 비교적 자연환경이 뛰어났다는 점과 그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대대로 잘 유지해온 생활방식이 중요했다. 나아가 제주여성들이 주어진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이용해 왔다는 측면은 제주도내 거의 모든 가정이 자급자족하는 생활체계를 구축하게 된 근간이 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거리적 관점에서 볼 때 제주여성들의 노동공간은 대부분의 경우 주거지로부터 불과 1~2km 이내에 거의 모두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5km 이상이 멀리 떨어진 곳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집안에 따라 띠를 한다든지, 소나 말의 꼴을 한다든지 하여 1년을 통틀어 볼 때 특별한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이다. 그리고 제주여성의 주요 노동공간인 밭과 들과 바다, 그리고 빨래터와 장터 등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짧은 거리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디를 가더라도 도보로 왕래하는 것은 물론이며 걷는 것 자체도 노동의 일부처럼 일상화돼 있었던 것이다. 집안에 따라서는 구르마(마차)를 이용하거나 또는 소와 말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운반하기도 하고 사람도 소나 말 등에 올라타서 지친 몸을 도움 받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소와 말 등에는 물론 사람의 등에도 물건을 실어 주거지와 노동공간 사이를 오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리고 여성들이 소나 말 잔등에 올라타 도움을 받는 일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 제주여성들의 노동공간은 주거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만큼, 집안이나 동네에 큰 일이 생겼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있었다.

세 번째로, 제주여성들의 노동공간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노동과 활동을 위해 끊임없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는 점이다. 제주여성들은 정해진 한 공간에서 일을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이어질 일들을 끊임없이 대화하며 결정했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서로 대화하는 당사자들의 농사일과 관련되는 수눌음이든, 혹은 조만간 한 동네의 어느 집의 대소사에 관한 것이든, 일부조에 대한 것들을 미리미리 의논하며 결정하는 장소로서의 특성

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노동에 대한 제주여성들의 대화는 그만큼 부지런하다는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제주여성들은 일정한 노동공간에서 노동의 재생산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노동에서 노동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만들어내곤 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사회의 제주여성들이 무조건 일만 하고 싶어하는 기계적인 인간도 아니었다.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나름대로 여유도 가지려고 했다. 모든 일은 가족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육체적·정신적인 위안을 추구했을 지도 모른다. 제주여성들의 생활이 노동의 연속이라고 강조해 왔지만, 괴로운 노동에서 탈피하는 수단도 다양하게 존재했다. 보통은 일을 하면서 노래(민요)를 자주 불러 힘겨운 상황을 넘기곤 했다. 그럴 때면, 같이 일하는 동료 중 누군가가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후렴구를 받아 불러 흥을 한층 돋구는 것이 보통이다. 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소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주여성들은 어떤 일이 마무리되면 서로가 어울려 한 때를 즐겁게 놀거나 도내의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으며, 또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 때면 마을내의 당(堂)을 찾아 위안을 구하기도 했다. 제주여성들 스스로도 그러한 휴식이나 마음의 위안을 쫓는 상황을 연출하지 않고서는, 결코 노동의 재생산만을 고집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네 번째로, 제주여성들의 노동공간은 하루를 기본단위로 볼 때, 매우 변화롭고 역동적으로 이어졌었다는 점이다. 대개 오전에 집안일을 하다가 바다로 잠수일을 나가거나 밭으로 농사일을 하러 나갔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사일을 하다가 잠수일을 하러가기도 하고 잠수일을 갔다온 후 집안일이나 혹은 농사일을 하러가기도 했다. 또한 집안일을 하다가도 동네 일이 생기면 마다 않고 뛰어 들고, 그러다가 몇몇이 모이면 또 빨래터로 나가거나 잠수일 하러나가는 것이 제주여성들이었다. 이처럼 제주여성들은 매우 변화에 강하면서도 역동적인 길을 걸으며 생활해 왔다. 따라서 제주여성들의 노동공간은 말 그대로 섬 지역의 환경과 같이, 아주 역동적이고 시시각각으로 자주 변화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제주여성들은 육지부 여성에 비해 매우 활동적이고 외향적(外向的)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나아가 제주여성들의 노동공간이 변화롭고 역동적이라는 배경은, 앞에서 강조한 다양한 노동공간들이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IV. 맺 음 말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전통사회의 제주여성들의 옥외 노동공간에 대하여 몇 가지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제주여성들의 노동공간은 크게 가내와 옥외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가내의 사례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옥외의 노동공간도 1년을 단위로 볼 때 항상 꾸준하게 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글에서 주로 다룬 노동공간은 솜씨의 노동공간으로서 길가(마을길)에서 시작하여 대화와 상념의 노동공간으로서 빨래터, 교환경제를 위한 노동공간으로서 장터, 생활자원의 조달을 위한 노동공간으로서 들녘(들판), 그리고 생계를 위한 실질적 노동공간으로서 밭(농경지)과 바다를 대상으로 하였다.

나아가 이 주제에서 다룬 노동공간은 노동의 경중(輕重)을 떠나, 전통사회의 제주여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제활동이 실질적으로 행해지던 공간적인 범위로서 노동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하는 장(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동현장을 통하여 제주여성들을 조명해 보면, 누누이 강조해 온 것처럼, 전통사회가 지배적이던 시기의 제주여성들은 가정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또는

가족들의 건강과 장래를 위하여, 온몸을 던져 일을 찾고 소화하는 여성상(女性象)으로서 남아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필자는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 전통사회의 제주여성들이 특히 두각을 나타내며 행하던 노동의 특징과 의미, 그리고 노동공간의 형성에 따른 다양한 특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함께, 제주여성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부지런해야 하고, 노동을 즐기며, 온몸을 내던져 일을 소화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배경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라는 점에 대해서도, 좀더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회경제가 발전한 만큼 제주여성들의 노동에도 많은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노동공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종류의 노동에도 제주여성들은 임금제(賃金制) 노동이 습관화되었고, 그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제주여성들은 시기에 따라 혹은 노동의 경중에 따라 노동을 선택하는 경향도 매우 높아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필요한 일손을 구하려는 농가주인의 측면에서는 임금지불을 전제로 고용하고 싶지만, 도저히 일손을 구할 수 없는 정도로 농어촌 사회는 크게 바뀌었다. 이제는 우리들 마음의 고향인 농어촌 지역도 하루 하루가 바쁘고 숨차게 돌아가는, 도시사회와도 별반 다른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과거 농어촌 마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수눌음은 그 강도(強度)나 성격이 많이 변색돼 버린 것도 사실이다.

시대가 바뀐 만큼, 제주여성들의 활동영역(무대)은 크게 넓어지고 활동양상도 아주 다방면에 걸쳐 다양해졌다. 따라서 그녀들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도 예전보다 훨씬 더 커진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과거 전통사회의 다양한 노동을 역동적으로 실행하던 제주의 여성상과도 관련지어 이해할 수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이처럼 활력이 넘치고 당찬 제주여성들의 행동내면에 깔려있는 사고(思考)나 유연성(柔軟性)이 애초부터 놓여진 자연환경의 영향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한층 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온 부모세대 내지는 조부모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지는 신중히 생각해 볼 일이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정화돼 가는 과정에서도 젊은 제주여성들의 역동적인 활약은 기대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논저

- 고광민, 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 高榮基, 1996, “제주도의 벼농사”, 高麗大學校大學院 地理學科 碩士學位論文.
- 고재환, 2001, 『제주속담총론』, 민속원.
- 권귀숙, 1996, “제주해녀의 신화와 실제: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0집 봄호, 227~258쪽.
- 김강임, 1998, ‘빨래터’(제주시, 『되돌아본 그때 그 시절—제주인의 슬기로운 삶 이야기—』, 제주시), 11~15쪽.
- 김동섭, 2004, 『제주도 전래 농기구』, 민속원.
- 金尙憲, 1601~1602, 『南槎錄』 (朴用厚 譯, 1976,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 김수완, 2006, “잠수 소득 증대 방안”, 『제주해녀 삶의 질 향상과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개

- 밭 세미나 자료집』, 59~64쪽.
- 金榮墩, 1993, 『제주민의 삶과 문화』, 도서출판 제주문화.
- 金恩希, 1993, “濟州潛嫂의 生活史”一事例研究를 中心으로—,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김태호, 2004, “제2장 제주지방-자연 및 생태환경”(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리지—전라·제주편—』, 국토지리정보원), 539~561쪽.
- 南錫珍, 1987, “濟州島 傳統社會의 農業經營에 關한 研究—涯月邑을 中心으로—”,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박정희, 2004, “제주도 여성문화에 관한 고찰—가족과 결혼생활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식, 2006,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좌혜경 외,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107~136쪽.
- 박태훈·고은경·현진미, 1998, “제주도 농농사 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濟大社會科教育』, 第16輯, 77~96쪽.
- 송성대, 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제주인의 海民情神(개정증보판)—』, 도서출판 각.
- 송시태, 2000, “제주도 암괴상 아아용암류의 분포 및 암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질학과 박사학위논문.
- 安美貞, 1997, “제주해녀의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濟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吳洪哲, 1980, 『聚落地理學』, 教學社.
- 유철인, 2001, “제주해녀의 삶 : 역사인류학적 과제”(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91~109쪽.
- 유철인, 2006, “약초할머니의 삶과 약초 이야기”(제주도·한라생태문화연구소, 『한라산이야기』, 한라산 총서 VII), 226~254쪽.
- 이종만, 2006, “제주 해녀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제주해녀 삶의 질 향상과 보호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세미나 자료집』, 19~24쪽.
- 이재하·홍완순, 1992, 『한국의 場市—정기시장을 중심으로—』, 민음사.
- 이-푸 투안 저(Yi-Fu Tuan), 구동회·심승희 역, 1995,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 전경숙, 2006, “전라남도의 정기시 구조와 지역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9권 제1호(통권 17호), 113~126쪽.
- 정광중, 2004, “곶자왈과 제주인의 삶”, 『濟州教育大學校 論文集』, 第33輯, 41~65쪽.
- 정승모, 1992, 『시장의 사회사』, 웅진출판.
- 濟州道, 1982, 『濟州道誌』(下卷), 濟州道.
- 제주도, 1993, 『제주도지(제2권)』 제주도.
- 제주도, 1968~1988, 『제주통계연보』, 제주도.
- 濟州道, 1994, 『濟州의 民俗 II(生業技術·工藝技術)—濟州文化資料叢書 2—』, 濟州道.
- 濟州道, 1995, 『濟州語辭典』, 濟州道.
- 제주도, 2000, 『2000 환경백서』, 제주도.
- 제주도, 2006, 『濟州道誌(第4卷)』, 제주도.
-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濟州道誌(第4卷)—산업·경제—』, 제주도.
-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06, 『한라산의 하천』(한라산 총서 VIII),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 제주특별자치도, 2006, 『2006년도 해양수산현황』, 제주특별자치도.
- 좌혜경, 2006, “제주 출가 해녀의 현지적응”(좌혜경 외,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9~244쪽.
- 주영하·전성현·강재석, 1996, 『한국의 시장—사라져가는 우리의 오일장을 찾아서—』(제3권 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광주 편), 공간미디어.
- 진관훈, 2004,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도서출판 각.
- 최유선, 2000, “주택가 길의 사회적 기능”, 『地理學叢』, 제28호, 27~37쪽.
- 한국지리정보연구회편, 2004, 『자연지리학사전』(개정판), 한울아카데미.
- 한림화, 2006, “해양문명사 속의 제주해녀”(좌혜경 외,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1~105쪽.
- 元學喜, 1988, “濟州島における海女漁業の變貌と生産形態”(立正大學日韓合同韓國濟州島學術調査團, 『韓國濟州島の地域研究—學術調査報告書—』), 102~118쪽.
- 榎田一二, 1976, “濟州島海女”(榎田一二地理學論文集刊行會, 『榎田一二地理學論文集』, 弘詢社), 67~85쪽.

2. 지도

- 1:5,000 지형도, 한림(翰林 075) 도폭(1984년 편집, 국립지리원 발행).